大田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236호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SW 신원이엔지
대표 김 종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223-2
TEL:(042) 823-2713
FAX:(042) 823-2714
H·P:010-5455-7591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큰폭 감소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665명 감소 · 서부지역 2015년 이어 2년째 ↓

2016학년도 대전지역 초등학교 취학예정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수를 조사한 결과 2016학년도 취학예정자는 모두 5908명으로 지난해의 6573명 보다 665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취학예정자수는 지난 2012학년도 6149명에서 2013학년도 6139명, 2014학년도 7135명으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다가 감소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동구 209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62명이, 중구는 2095명으로 ▲339명이 감소했으며, 대덕구는 1654명으로 ▲158, 기타 사립 및 특수는 62명으로 ▲6명이 감소했다. 이를 지구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구에 속한 학교들은 취학예정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서부지역 취학예정자수도 2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취학예정자수를 조사한 결과 2016학년도 취학예정자는 모두 8382명으로 지난해의 8884명 보다 502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취학예정자수는 지난 2012학년도 8217명에서 2013학년도 8721명, 2014학년도 9274명으로 3년간 증가세를 보이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4,27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26명이, 유성구는 4004명으로 ▲273명이 감소했으며, 기타 사립 및 특수는 103명으로 ▲3명이 감소했다.

이를 지구별로 살펴보면 둔산지구 등 대부분의 지구에 속한 학교들은 취학예정자수가 감소한 반면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들이 건설된 도안지구 등 신도시 학교들은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학년도 취학예정자는 2015년 12월 20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배부받게 되며, 2016년 1월 5일 예비소집과 2016년 3월 2일 입학식에 참석하면 된다. 이정복 기자

KTX 공주역 이용객 10만 돌파 '초읽기'

현재 9만 7151명, 하루 평균 387명 이용…15일쯤 넘어설듯

호남고속철도 KTX 공주역 이용객 10만 명 돌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4월 2일부터 지난 8일까지 251일 동안 공주역을 이용한 KTX 승객 수는 승차 4만 9484명, 하차 4만 7667명 등 모두 9만 7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387명(주중 318 · 주말 562명)이 공주역을 이용한 셈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15일쯤 이용객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주시와 코레일은 10만 번째 이용객에게 축하 화환과 기념품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주역 이용객 수를 월별로 보면, 개통 첫 달인 4월 1만 2233명으로 출발한 공주역 이용객은 5월 1만 4969명으로 정점을 찍고, 메르스 사태가 전국을 휩쓴 6월에는 7006명으로 급락했다.

이어 7월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힘입어 1만 469명이 이용하며 1만 명대를 회복하고, 8월 1만 1846명, 9월 1만 2117명, 10월 1만 3311명, 11월 1만 2535명, 12월 8일 현재 2665명 등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요일별 평균 이용객은 토요일이 585명으로 가장 많고, 일요일 530명, 금요일 439명, 월요일 315명, 목요일 298명, 화요일 279명, 수요일 26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지난 9월 27일로 1030명(승차 577명, 하차 453명)이 이용했으며, 가장 적은 날은 지난 6월 9일로 124명에 불과했다.

현재 공주역 이용객 수는 특히 하루 평균 40여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10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공주역을 도 서남부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와 유관기관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도는 공주역 개통 전 연계 교통망 구축, 도로표지판 정비, 시내 · 시외버스 운행노선 조정,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연계 홍보 등을 펼쳐왔다.

개통 후에는 셔틀버스 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도 수립 ·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도 23호선과 국도 40호선 연결, 계룡대 연결도로 국지도선 연계교통망 구축,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이용객 목표를 하루 평균 800명으로 잡고,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세계유산 백제' 상품 이외에 육군에서 운영 중인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선보인다.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은 하루 평균 300~400명이 사전 예약해 병영체험 등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도는 육군과 협의를 거쳐 공주역 이용 상품을 출시한다는 복안이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공주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00~15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는 공주역을 테마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공모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

공모사업을 통해 테마가 선정되면 공주역은 경북 봉화 분천역 '산타마을'과 전남 보성 득량역 '7080역'과 같이 역사 자체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역사의 규모나 시설 투자에 비해 이용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용객 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며 "공주역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지웅기자

충남도의회 누리과정 본회의 통과 불투명

"직권남용, 예산강제 권한 없어"

김종문, 문제제기 의사 밝혀

충남도의회가 2016년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제로 주도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공휘 의원(천안,새정연)은 충남도교육청 예산심사를 두고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도교육청 예산을 칼질했다면 이는 사실상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도의회가 예산편성권한은 없으며 해당 기관이 편성한 예산에 대한 심사(심의)권한만 있어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전제로 권고수준을 넘어 예산강제 권한은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39조 1항에는 의회의결사항에 11개항목중 예산심의.확정권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편성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편성이 가능토록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가 사전 동의절차 없이 편성.강행을 추진, 새정연 소속 의원들의 위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김종문 의원(천안, 새정연)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16일 본회의를 통해 예산가결전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률상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치원이 담당하고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이 맡도록 되어 있어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돼 있다"면서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써 교육감의 소관에 있고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박근혜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정연 소속 의원들은 잇따라 연쇄 모임을 갖고 도의회의 강제성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재정 위기 극복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충남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도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제283회 정례회 5차 위원회에서 '2016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충남도교육청 주요사업비 349억 원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536억 증액하는 예산조정을 했다"고 강조 했다.

이어 "2016년 예산을 편성함에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충남도의회도 또한 유초중등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꼼수를 부린 것은 200만 도민의 열망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내포=이지웅 기자

충남도, 4분기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 충남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안희정 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김기영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정형희 제32보병사단장, 김양제 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와 안건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 10명 중 6명 '차별 받아'

우리나라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에 따르면, 지난 9일 인권교육센터 별관(인권위 11층)에서 학교비정규직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들이 겪는 차별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10~11월 두 달 동안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의 조리사, 영양사, 사서, 행정보조 등 비정규직 종사자(3823명)와 방과후 강사(1976명)를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은 근로 및 복리후생 등 처우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학교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605%(2,131명)가 차 심부름 등을 한다고 답했고, 비정규직 사무직군을 중심으로 다과 심부름을 비롯한 광범위한 잡무를 관행처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2113명(62.9%, 복수답변 허용)이 정규직 교직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는 답했고, 이 가운데 '복리후생비에 차별이 있다' 1395명(응답자의 66%), '교내에서 제공되는 각종 문화체험, 연수, 행사 등에서 배제된다' 1222명(응답자의 57.8%), '직무교육시 비용이나 프로그램 제공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1186명(차별응답자의 51.6%)으로 조사됐다.

방과후 강사들은 885명(44.9%)이 수업운영에 필요한 냉난방지원이 미흡하다고 답했고,' 수업준비실과 대기실이 없다' 1507명(76.6%), '강사 개인 사물함이 없다' 1677명(85.2%),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에 643명(32.7%)이 답했다.

방과후 강사들의 3분의 2이상인 1339명(67.9%)은 '개인적인 병가 또는 경조사 때에 휴강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병가나 경조사로 인한 휴강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당사자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학교비정규직 처우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2013년) 및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2013년)를 한 바있다.

김정환 기자

새누리당, 현역단체장 중도사퇴 후 총선출마하면 '공천불이익'

중도 사퇴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 발생…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 우려

새누리당은 현역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 후 총선출마시에는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하여 공천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자치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에 사퇴하여 총선 등에 출마하면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하여 공천불이익을 주기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 120일 전인 15일은 관할 지역에 출마하는 현역 단체장의 사퇴 시한이다.

그러나 현역 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하여 공천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총선에 입후보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이를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명시'하는 내용의 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의 임기 중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 및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재정 소요를 최소화 하고, 공천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또 "이날 최고위에서는 이인제 최고위원이 현역 단체장의 중도사퇴는 당과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고, 이정현 최고위원은 절대 못나오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대수기자

공주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2016년도 백제문화제 도비예산 지원 촉구 성명서 발표

공주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2월 10일 제178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치고 『백제문화제 도비예산 지원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박병수 부의장, 윤홍중 의원, 박기영 의원, 한상규 의원, 김영미 의원이 동참하였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오랜 기간 백제역사와 문화의 전통과 명맥을 지켜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2016년도 백제문화제 관련 도비 예산 지원이 대폭 축소 편성된 사실은 상당히 유감이며, 충청남도에서는 공주시민의 바람대로 매년 백제문화제가 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영해의원, 천안검찰지청장 표창

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위한 조례 발의 등 활발한 활동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9일 천안박물관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과 법무부법사랑위원천안아산지역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2015범죄예방한마음대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김주원 지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 의원은 특히 법사랑 천안아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소유예 청소년과 결연하여 바른길로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모든 활동에 임하면서 아산시의회의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아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및 제정해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과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사업 등에 대한 아산시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의원의 금번 표창 받게 된 세부공적을 보면 법무부법사랑위원천안아산지역연합회 위원으로 봉사활동조건부 기소유예 학생 결연으로 청소년들의 멘토활동 및 고교 그룹홈에 정기적인 방문활동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소년 범죄예방에 관련된 캠페인 솔선수범 등 지역발전 및 학교 중단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영해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지금까지 해온 청소년을 위한 활동과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인 것 같다"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활동으로 시민께 꼭 필요한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김석붕 전 청와대비서관 국회의원 출마선언

김석붕(52·새누리당·사진)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20대 국회의원선거 당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비서관은 10일 당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가 충남의 중추도시, 서해안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 앞으로 10년이 너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의 미래를 디자인할 새 일꾼으로 새롭게, 더 크게 채우고 키울 적임자인 만큼 경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비중을 대폭 확대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비서관은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과 제일기획 수석국장,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을 지냈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 도내 미불용지 보상 노력 촉구

올해 7억7천만원 예산‥전체 1만 3494필지 395억원 턱 없이 부족해

충남도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에서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도민의 사유지를 점유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김종문 의원(천안4)에 따르면 충남도가 2016년도에 미불용지 보상으로 편성한 예산은 7억7천만원이다. 이는 전체 보상액인 395억원(1만 3494필지)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문제는 대상자가 많아 접수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 시 우선 보상하게 돼 있어 자칫 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은 "6·25전란 이후 재건사업과 새마을사업에 따른 도로확충공사에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사유지를 점유해왔다"며 "현재 충남도의 보상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에 헌납 또는 기부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그 후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토지 정리가 안 돼서 보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량한 도민과 정보에 취약한 토지주는 현재 보상 예산금으로 볼 때 향후 10년 또는 20~30년 동안 기약 없는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향후 충남도는 예산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이지웅기자

이상민의원, 2년 연속 '우수 상임위원장상' 수상

단 한번도 정회없이 국감 이끌어 타 상임위의 모범 되어 대표적 우수상임위원장 선정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10일 오후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70개 시민단체연합 <국정감사 NGO모니터단>로부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합단체로 지난 1999년 출범해 17년 동안 매년 국회 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및 우수상임위원장 등을 선정해왔다.

'국감NGO모니터단'은 올해에도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지방현장까지 포함해 2015년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며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했다.

국감NGO모니터단은 "파행의 위기 속에서도 이상민위원장이 인내하고 설득하여 단 한번도 정회없이 국감을 이끌어 타 상임위의 모범이 되어 대표적으로 우수상임위원장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평의원과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도 내고 핵심사안에 대해 송곳질의를 하였고, 각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는 등 남다른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복기자

중구의회, 음란물 전송 H의원 30일 출석정지 의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최근 음란물 전송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해당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중징계를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12월 10일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징계안은 표결에 붙여졌고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결과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은 30일 동안 의회 회의 등에 출석치 못하게 되었다.

해당 의원은 "우선 동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중구 구민들에게도 송구스럽다. 본회의 의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공개사과를 했다.

이는 전날 중구의회 소속의원들이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음란물 전송 물의를 일으킨 소속의원에 대하여 자체징계를 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품의유지를 위한 자정결의를 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이연희 서산시의원, 주민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예천주공 1단지 노인정에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이연희(새정치) 서산 시의원이 9일 예천주공 1단지 노인정에서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을 인정받아 예천주공1단지(예천4통)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윤영호 노인회장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아파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 점에 감사해 입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연희 시의원은 감사패를 받는 자리에서 지역민의 애로점을 귀 기울려 듣고 더 낮은 자세로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겠다. "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연희 시의원은 현재 사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전제조건, 정부여당 약속이행'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보건의료부분 제외 조건으로 제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의 전제조건은 정부여당의 약속이행이다"고 보건의료부분 제외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뻔뻔함과 파렴치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며, 경제파탄의 책임마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이다. 우리 당은 의료민영화가 우려되는 '보건의료' 부분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지난 3월 여야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여당이 영수회담 약속을 이행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즉시 통과될 수 있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안은 통과시켜달라고 '어린아이 떼쓰듯'하고 있다."고 여야 영수회담 약속을 거론했다.

또한 박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당장이라도 일자리 69만개가 생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 법은 R&D와 정책방향을 규정한 것일 뿐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고 일자리창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9건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면서 "'차떼기당'의 오명도 모자라 '떼쓰기당'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안들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기 전에 약속부터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대수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제 3차 임시총회(제 2차 대의원 총회) 개최 공고문

명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의원 여러분께 공고합니다.
저희 명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제 3차 임시총회(제 2차 대의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대의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시어 상정 안건 의결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12월 17일 (목) 18시 30분
2. 장 소 : 금광한정식 4F 대회의실 ☎ 042 - 226 - 8686
   -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127 (대사동)
3. 상정 안건 :
   - 제 1호 안건 : 제 2기 임원선임 관련의 건.
   - 기타 안건

※ 출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12 월 09 일

세부 문의 : 조합 사무실 (☎ 042 - 536 - 7575)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6, 4층 (괴정동, 오렌지타운)

명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법원 "금강살리기 사업 적법"

6년만에 4대상 첫 확정판… 환경단체 "국민과 역사 우롱하는 판결" 반발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에 대한 사업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대전과 충남 지역 주민들 329명이 금강지역 4대강 살리기 공사를 중단하라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취소하라며 서울과 부산, 대전, 전주 지역 4개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낙동강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 목적과 내용, 이후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자체가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금강살리기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대전·충남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법원이 4대강사업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과 역사를 우롱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고 있었던 결과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이는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복 기자

권 시장 '현장시장실' 적극운영

대동하늘공원, 자양동 보도정비 필요지역 등 현장 발품

권선택 대전시장은 10일 오후 2시부터 동구 대동하늘공원, 거리미술관, 자양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며 현장시정을 펼쳤다.

이날 권 시장은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대동하늘공원 행복드림하우스 건축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다목적 편의시설 조성계획과 벽화마을 재보수 등에 대한 필요성 등을 보고받고 벽화마을 노후상태, 거리미술관 현장 등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대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동산1번지 일원에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대동하늘공원은 이제는 옛동네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의 색다른 명소가 됐다" "이러한 문화환경 개선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애착심과 함께 소통과 화합의 기반을 다져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과 차량 통행이 불편해 도로 정비가 필요한 자양동 골목길 현장을 방문했다.

주민들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이면도로를 보수 할 때 대부분 도로를 살짝 걷어내고 덧씌우기만 해서 노면상태가 요철로 많이 불량하고 소음도 심해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많아 재포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구간이다"며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권 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로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설물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골목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영호 기자

신기술 · 서비스 분야 물품 · 용역입찰 집행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다음 주('15.12.14~12.18)에 '정부통합전산센터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사업' 등 총 391건 약 5,698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다음 주 집행되는 입찰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업이 '정부통합전산센터 2016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사업' 등 234건, 4,202억원, 일반용역은 '외국인력상담센터 위탁운영 용역' 등 141건, 1,196억원, 건설용역은 '중학교 신축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16건에 300억원이다.

정보화 사업은 80억원 이상 12건을 제외한 222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36.3%인 1,527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용역은 10억원 이상 15건을 제외한 126건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또는 1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전체금액의 31.9%인 382억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수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2.6%, 4,706억원, 건물 위탁관리 청소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0%, 683억원, 학교신축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 217억원, 기타 전체 금액의 1.6%, 92억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시 소재 본청 2,916억원, 서울지방청 2,233억원 등 2개청이 전체 금액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부산 등 10개 지방청 549억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박봉관 기자

'제26회 한밭교육대상' 수상자 선정

대전시교육청, 교육유공자 사기 진작 · 교육존중 풍토 조성

박경철 이덕희 이화순 염한영 정성욱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대전교육시책 구현과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교육유공자의 사기 진작 및 교육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한밭교육대상 수상자 6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밭교육대상은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예·체능교육, 교육행정, 평생교육·교육독지가 총6개 부문으로 나누어 한밭교육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5년 제26회 한밭교육대상 수상자는 ▲유아·특수교육 부문 대전맹학교 이화순 교장 ▲초등교육 부문 (전)대전교육과학연구원 임한영 원장 ▲중등교육 부문 대전과학고등학교 박경철 교장 ▲예·체능교육 부문 대전봉산중학교 이덕희 교장 ▲교육행정 부문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최경엽 과장 ▲평생교육·교육독지가 부문 ㈜금성백조주택 정성욱 대표가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대전맹학교 이화순 교장은, 시·청각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감각장애지원센터를 국내최초로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전국적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으며, 개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심리치료와 시각 손상으로 인한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성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의자존감 향상과 인성 함양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임한영 원장은, 40년이 넘는 재직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및 생활지도에 기여하였으며, 교육현장연구에 공헌하여 변화를 주도하였고, 차별화 된 눈높이 교육으로 공교육 강화와 학교 및 교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1980년대부터 초등영어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대전과학고등학교 박경철 교장은, 과학영재학교 개교, 대전교육정보원 개원, 대전산업정보학교 설립 추진 등 대전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역량으로 과학교육·영재교육·정보화교육·특성화고 발전 등과 관련하여 많은 공적을 거두어 미래와 세계를 선도하는 대전교육 시책 구현에 공헌하여 선정되었다.

대전봉산중학교 이덕희 교장은, 체육 영재를 발굴·육성하여 학교 체육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육상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체육과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보급 등 각종 교육 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수요자 만족도 향상 및 체육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최경엽 과장은, 탁월한 행정능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조직재설계 시 신속한 사전조치 등을 통한 조직안정성 확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교육청으로서 고객만족도 향상, 안전총괄과장 업무 겸임으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공로다.

㈜금성백조주택 정성욱 대표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1990년대부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교육 배움지원'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각급 학교·기관에 장학금 지급과 아동양육시설 학생들에게 배낭여행 등을 지원한 공적을 인정받아 평생교육·교육독지가 부문에 선정되는 등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31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자로 선정된 6명에게는 상패가 수여된다.

대전시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심사위원장)은 "한밭교육대상은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공직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영예로운 상으로, 추천된 분 모두 훌륭한 공적을 가지셨지만, 심사숙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였다"면서 "대전교육가족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대전교육을 더욱 빛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조폐공사, 청렴문화 확산 '솔선수범'

공공기관 측정 결과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영예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가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6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조폐공사는 전년 대비 0.05점 상승한 종합청렴도 8.67점(외부청렴도 8.90점, 내부청렴도 8.71점, 정책고객평가 7.77점)을 득점해 공직유관단체 Ⅱ유형 27개 공공기관 중에서 3위로 5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청렴도 점수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공사는 측정 대상 기관 총 617개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에 속해 있으며 한국동서발전, 기술보증기금 등 27개 공공기관과 측정을 받았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임원진 청렴교육 참가 등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솔선수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선제적 도입, 청렴 이벤트 참가(반부패 청렴 화이트 해커 ver.2 공모) 등이 우리 공사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컨텐츠 발굴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2013년 8.56점, 2014년 8.62점, 2015년 8.67점)

한편,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9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11점) 상승했다.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가 전년 대비 개선되고, 감점 대상 부패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송병배 기자

제8차 발굴조사 성과 현장 설명회

공산성 31동의 백제 시대 건물지 · 완형의 나무 사다리 등 확인

문화재청(청장 나선화),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공주대학교박물관(관장 이남석)과 함께 11일 오후 4시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공산성의 제8차 발굴조사 성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산성의 백제 왕궁 부속시설 발굴조사는 2008년부터 연차 진행되었고, 올해는 성안마을이 있었던 북서쪽 대지 1만 2000㎡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백제 시대 건물지 31동과 연못, 나무 사다리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지는 동남향의 완만한 구릉 사면부로 5단의 계단식 축대를 쌓았는데, 180㎝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세워 보강하고 있다. 대지 중앙부는 마당을 중심으로 'Γ(ㄱ을 엎은 꼴)' 모양의 건물지가 분포되어 있다.

건물지 중 다른 건물보다 2배 이상 큰 장방형(長方形, 직사각형) 건물이 주목되는데, 3차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상급의 관청건물군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외에도 의례용으로 추정되는 육각형 건물지와 취사시설이 없는 대형건물, 별도의 전용 부엌 칸을 갖춘 건물지도 주목된다. 건물지 사이에서 6m 너비의 남북방향 도로와 3m 너비의 동서방향 도로를 확인했다. 도로의 양 측면에는 측구(側溝, 길도랑)형의 배수로가 놓여 있는 것도 확인했다.

건물지 북쪽에서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사각형 형태의 너비 10m, 바닥면 6m, 깊이 2.6m의 대형 연못도 확인했다. 연못 바깥에는 1.5m두께의 점토를 발라 물이 새는 걸 방지하고 있다.

연못 바닥에서는 백제 시대의 나무 사다리가 출토됐다. 길이 6m, 너비 70~80㎝이고, 발판은 50㎝간격으로 11개가 있다. 대전 월평동유적 내 목곽고에서 유사한 형태의 사다리 파형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완전한 형태의 백제 시대 사다리는 이번이 최초 발견이며 연못 내 진흙 속에 놓여 있어 형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발판의 양쪽 끝 부분에 장방형의 촉을 내어 결합한 형태로 백제의 목재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다. 수종(樹種) 분석을 통해 사다리 재질은 참나무인 것이 밝혀졌으며, 앞으로 정확한 연대측정을 위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기와 조각, 벼루 등 매우 다양하다. 다수의 기와 조각에는 도장으로 무늬나 글자를 새긴 인장 기와가 있는데 '王', '古', '久', '口', '工' 등의 문자와 '※', '격자', '산(山) 모양' 등 무늬가 찍혀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산 모양 무늬 기와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 무령왕릉 출토 은제탁잔과 부여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백제금동대향로에 새겨진 山 모양과 유사한 형태로 완만한 능선의 산이 2개씩 중첩된 형태로 표현되어 당시 백제인의 인식과 자연관을 엿볼 수 있다.

공주대학교박물관 발굴단은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산성 발굴조사를 통하여 60여동 이상 집중된 백제 시대 건물지를 확인했으며 공산성 내 왕궁관련시설의 확인은 물론, 백제 왕성의 도시구조와 사회상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봉관 기자

대전도시철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가져

"'골든타임' 중요성 인식"

대전도시철도공사는 12월 10일 본사 대강당에서 직원 2인 1조씩 8개조와 역무원 6개조 등 14개조가 선수로 참가하고 2백여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가졌다.

이날 선수들은 심폐소생술 교육 전용 인형으로 가상한 응급환자가 있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현장 확인!"과 "안전!"을 복창한 뒤 그동안 익혀 온 심폐소생술 시행과 자동제세동기를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사용했다.

선수 한 명이 수십차례에 걸친 흉부압박을 할 때에는 이마에 구슬땀이 흘렀으며 또 한명은 신속하게 119에 신고함과 동시에 자동제세동기를 현장에 가져와 사용하는 긴박한 모습 때문에 대회장은 숨죽이는 긴장감이 흘렀다.

생명을 살리는 일인만큼 참가선수 평가 항목은 12개에 달하고 정확성과 신속에 높은 점수를 매겼으며 심사위원으로는 대전서부소방서에서 나온 2명이 심사위원을 맡아 선수들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6개 팀을 뽑았다.

'최고의 응급구조 능력'을 보인 최우수상에는 상장과 30만원 포상금, 우수상 2개조는 상장과 포상금 20만원, 장려상 3개조는 상장과 10만원의 상금을 각 각 받았다.

공사 차준일 사장은 "응급상황에 처한 고객을 살리기 위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게 됐고 고객 구조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동 정●●●

직장 내 성인지 통합 교육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11일 오전 9시 30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 직장 내 성인지 통합 교육 참석.

지역사회서비스 발표회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 11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광역철도 예타 통과 성공추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오후 5시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리는'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발표회 및 화합한마당' 참석.

평생교육 종강식

한현택 동구청장= 11일 오전 11시, 판암2동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되는 '2015 평생교육 종강식' 참석.

나눔캠페인 거리모금 행사

박용갑 중구청장= 11일 오후 2시 중앙로지하상가 이벤트홀에서 개최되는 '희망 2016 나눔캠페인 거리모금 행사' 참석.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장종태 서구청장= 11일 오전 10시 서구청 대강당에서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참석.

제16기 평생교육원 발표회

허태정 유성구청장= 11일 오후 1시 신성동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복지관 제16기 평생교육원 발표회 참석.

민관정간담회

박수범 대덕구청장= 11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광역철도 성공건설을 위한 민관정간담회 참석.

대덕구-새누리 대덕당협, 지역 현안 물꼬에 긴밀 협조 다짐

주요현안사업 공동대응체계 구축

대덕구와 새누리당 대덕구당원협의회(위원장 정용기, 이하 대덕구당협)는 10일 충청권광역철도와 회덕IC 조기 건설 등 16개 지역 핵심 현안 추진과 관련해 긴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주요 당정인사들은 이날 오전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덕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날 당정은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회덕IC 조기건설과 국도 17호선 연결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전산업단지 서측 진입도로 건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남한제지 및 쌍용양회 도시개발사업 ▲효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동 욕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동 새뜸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지구 도로건설, ▲행복주택 건립사업 ▲장동 고갯길 위험도로개선 ▲회덕동(장동)취락지역 도시계획 도로사업 ▲사중골(읍내동) 재해위험지역 개선 ▲중리동 한촌공원 시설정비 등 16개 사업을 꼽고 그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추진 사항 등을 협의했다.

대덕구는 이 자리에서 16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관련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새누리당 대덕구 당협위원장인 정용기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양측은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한 충청권광역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오정역 추가와 조차장역 신설, 회덕~신탄진 간 복복선화, 인입선 이전 문제 등 추가 협의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안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를 하기로 했다.

또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회덕IC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예타 통과를 비롯한 조기 건설을 위한 각종 제반 사안에 대해서도 공고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선6기 대덕구는 당정이 유기적으로 공조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2016년에도 16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20만 대덕구민의 숙원사업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역시, 지자체 간 조정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용기 의원도 "산적한 구민 숙원사업과 애로사항에 대해 서로 교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대덕구 미래를 위해 주요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와 새누리당 대덕당협은 앞서 지난 5월 7일 이 같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통한 양측 간 긴밀한 공조를 논의한 바 있다.

김태선 기자

유성구,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시간의 낭비 최소화"

유성구는 대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취득세 분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지 관리시스템은 각종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이미지로 데이터베이스화 해 실시간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세무민원 상담시 담당자가 종이문서를 찾는 데만 10~30분이 걸리는 등 민원 대기와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종이문서로 관리되는 지방세 신고서 및 증빙서류가 취득세의 경우만 연간 3만 건, 종이문서 15만장 이상 발생하는 막대한 자료량 때문이다.

이에 유성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서버컴퓨터, 고속스캐너 구축을 완료하고 12월 한 달간 취득세 분야 신고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세무업무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서비스 만족도와 행정신뢰도 상승을 기대했다.

앞으로 표준지방세시스템과 연계해 부서 간 자료를 공유하고 취득세 이외에도 점차적으로 재산세, 체납정보 등 다른 지방세 부분으로 확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인력 및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의 효율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갑천·유등천 공중화장실 4개소 신축 개방

여성·노약자·장애인등 배려 일반시민들에 개방

대전시는 10일 갑천 및 유등천 변에 수세식 공중화장실 4동을 설치 완료하고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설치된 곳은 갑천 계룡대교 하류와 유등천 가장교 하류,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안영교 상류지역이다.

이번에 신축한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을 비롯하여 남여화장실에 각각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는 등 편의를 도모했으며, 입구에 가림막도 설치해 이용시민이 부담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의 척도로 활용되는 만큼 수시로 점검해 시민들을 위해 깨끗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임을 감안해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의 3대 하천에는 수세식 화장실 44개, 재래식 화장실 43개 등 모두 87개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전시는 내년에도 4억 원을 들여 수세식 화장실 2동과 노후 재래식 화장실 2동을 신축·개선할 계획이다.

이영호 기자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보고대회·송년회 열려

한밭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남인수/이하 한밭센터)는 지난 9일 샹젤리제웨딩홀에서 개소 12주년을 맞이해 장애인 이용자와 근로자 및 시.군구관계자, 시.구의원, 국회의원, 학계, 국민연금공단 등 지역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사업보고대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열심히 뛰어온 한밭센터 2015년을 돌아보는 사업보고대회를 시작으로 2부는 시상식 및 감사패전달, 점심식사 후 3부는 장기자랑과 경품추첨으로 분위를 한껏 고조시키며, 한 해 동안 고생한 장애인과 근로자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안겨주며 함께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시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종사자 4명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상을 수상했고, 난관을 극복하고 자립생활을 실현한 장애인 당사자 4명에게는 서구의회 의장상을, 또한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과 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박병석 국회의원상 2명 , 박범계 국회의원상 2명이 수여됐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정착 및 제도개선에 공헌한 공로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 2015년 영예에 자립생활대상 2명과 헌신적인 봉사와 후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펄스캠 서구지점과 스킨리더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장종태 서구청장은 "2015년 사업보고대회를 보면서 한밭센터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2016년에도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명품서구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밭센터 남인수 소장은 "앞으로도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을 원칙으로 장애인을 대변하는 센터, 중증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박용갑 청장 시민인권상 수상

박용갑 중구청장이 대전인권사무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서 인권자치부문 시민인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민인권상은 시민인권센터(소장 오노균)가 창립 1주년 기념으로 시민과 함께 인권운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인권자치부문을 비롯해 인권복지.법조.실천.의료.매체부문 등 6개 부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수상자는 박용갑 중구청장(인권자치부문)을 비롯해 윤경열 행복마을원장(인권복지), 최기석 법률사무소 대표(인권법조), 임동표 한국과학진흥원 대표이사(인권실천), 최경옥 대청병원 수간호사(인권의료) 및 불교공뉴스 대표인 혜철스님(인권매체) 등이다.

박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중시 시책추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평가에서 효 인프라 집적단지인 '효월드' 조성과 국가 유망축제인 효문화뿌리축제 개최를 통한 인성함양 및 인권증진 기여,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규제 강화 및 불편을 주는 규제해제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 선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대전시의원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를위한 장애인콜택시 조례안을 발의해 장애인 콜택시를 만들고, 재활용품 수거 현장행정을 추진하며 기간제근로자 환경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인권의 최우선 과제인 고용안정화를 이룬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용갑 청장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서 기쁘다"며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발굴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NH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 대전녹색어머니회

발전기금 1100만원 전달

NH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본부장 안병서)는 10일 농협 대전영업부에서 우리아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위한 발전기금 11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 날 전달식에는 대전녹색어머니 연합회장을 비롯한 6명의 어머니회 임원진과 김훈태 NH농협은행 대전영업부장 등 농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발전기금은 대전시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지도 및 보호활동, 안전한 스쿨 존 만들기 캠페인등에 사용된다.

NH농협은행 대전영업본부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발전기금을 대전녹색어머니회에 전달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송병배 기자

서구 '도마·변동 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탄력

"균형발전·도시 활력 제고"

서구는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도마동, 변동, 가장동 일원)에 대하여, 12월 11일 자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권역 재정비촉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는 사회적 여건 변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촉진구역별(도마.변동 1, 3, 6, 8, 11구역)로 토지이용계획 변경 ▲허용용적률 234.2%에서 266.6%까지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고, 존치지역을 고려한 경관 상세계획을 마련했다.

서구는 올해 340억원을 투입해, '도마.변동 8구역'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관 건립을 착공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도마.변동 1구역' 어린이공원 조성 및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선도사업을 통해 재개발 촉진에 앞장선다.

또한, 촉진구역에서 해제된 존치관리구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 생태놀이터 조성, 여성친화 행복마을 시범사업 등 주민 공동체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균형발전 및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아낌없이 행정지원 하겠다."며 "주거환경 개선, 기발 시설의 확충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만전

市, 원활한 교통소통·시민불편 최소화

대전시는 겨울철 강설 및 결빙시에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제설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점검해 왔으며, 현재 제설기 탑재용 차량 96대 등 총 123대의 장비와 염화칼슘 2,806톤과 소금, 모래 등 제설자재 확보를 통해 제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제설 취약지역인 경사지, 교량, 고갯길 등에 자동염사분사장치 35개소 설치하고, 도심 주요 교차로 및 오지노선 외곽지역 등에는 제설함 1,294개와 모래주머니 303,000개를 제작 배치 완료했다.

아울러, 제설취약지역 441개소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외곽 오지마을, 고갯길과 같은 지역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지 버스노선에 27명의 '모니터요원'과 330개 노선에 4,309명의 '주민자율제설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제설대책 이외에도 폭설 시를 대비해 장비 업체 및 군부대 등과도 협조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 등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안전을 위해 내 집 앞과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호 기자

관세청 청렴선도기관으로 '우뚝'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

관세청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수등급에 이어 금년은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됨으로써 명실공히 청렴선도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번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민원인) 60%, 내부청렴도(내부직원) 25%, 정책고객평가(전문가 등) 15%로 구성되며, 금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를 점수화하고 부패발생 현황에 대한 점수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낙회 청장은 "청렴이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긴 하지만,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것은, 관세청 직원들이 업무 뿐만이 아니라 자기관리도 청렴하게 철저히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청렴문화가 관세청에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평가결과는 '청렴'을 관세행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관세행정 고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실제로 관세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인 청렴활동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관세청의 청렴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 학계0104기업 등의 청렴 전문가와 함께 청렴정책을 논의하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적 공직관 확립을 위해 청렴실천 서약 및 '고위공무원 대상 청렴도평가'를 실시하였고, 전직원을 대상으로는 사이버 상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부패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청렴의식 내재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세청은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해 기대하는 청렴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관세행정의 투명성 ·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청렴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봉관기자

아산폴리텍대, 제33회 대한민국신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설)는 시각디자인과(지도교수 이유영, 현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학생들이 제33회 전국공모 대한민국 신미술대전에서 대거 입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百대전점, Lovely Christmas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강재욱)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을 맞아 사은행사와 겨울 아우터 제안 등 풍성한 행사를 마련하고 주말 쇼핑고객을 맞이한다.

11일부터 13일까지 사은행사가 진행되어, 당일 30만원이상 구매시 'Blanc des Blanc 럭셔리 산타캔들'이나 '행남자기 X-mas 다과세트'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그리고, 가전, 가구, 주얼리, 시계, 모피 상품을 당일 100 · 200 · 300 · 500 · 1000만원이상 구매시에는 각 롯데상품권 5 · 10 · 15 · 25 · 50만원을 증정한다.

9층 특설매장에서는 올젠, 까르뜨블랑슈 등 남성캐주얼 브랜드들이 '겨울 아우터 특집전'을 펼쳐, 올젠 점퍼를 19만9000원에, 카르뜨블랑슈 코트를 22만9000원에, 에디션 코트를 14만9000원에 판매한다.

그리고, K2, 아이더 등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겨울 아우터를 선보여, K2 구스다운을 14만9000원에, 아이더 다운재킷과 스림다운을 각 24만원과 13만5000원에 판매한다.

1층 행사장에서는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과 살로몬이 '겨울상품 특집'행사를 진행해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에서는 몬타너스 알파재킷을 26만9000원에, 살로몬에서는 다운점퍼와 바람막이를 각 17만9000원과 7만9000원에 선보인다.

송병배기자

천안시 서북구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홍보

천안시 서북구는 관내 전화권유판매업소 27개소에 대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홍보할 계획이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란 소비자가 전화권유판매에 대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는 것으로,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등록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수신거부 대조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

수신거부 대조는 마지막 수신대조 30일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대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조치가 취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번호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으며 위반업체의 신고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전화권유판매업을 함에 있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를 마케팅 목적으로 대조할 수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전화권유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대전농협 농촌 일자리 창출하는 '귀농start' 상품 인기

지난달 2일 출시 후 15영업일만에 판매금액 1조원 달성

농협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송현)는 도시민의 귀농 · 귀촌 준비와 정착을 돕고 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는「귀농start」상품을 지난달 2일부터 대전관내 농 · 축협을 통해 판매 중이다.

농협에서 개발한 '귀농start' 상품은 귀농 · 귀촌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가능성을 찾는 청년층 모두가 성공적인 창농(創農)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금 · 대출 상품에 종합지원서비스 등을 결합한 상품이다.

귀농에 관한 관심 증가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해당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첫 출시 이후, 15영업일만에 판매금액이 1조원을 달성했고, 20영업일에는 약 1조 5천억원이라는 판매금액을 달성해 그 열풍이 대단함을 알 수 있다.

이 상품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자금마련 기간과 은퇴 유형에 맞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입출식통장과 예금, 적금 등 5종의 수신 상품과 2종의 대출상품으로 구성되어 귀농귀촌 여건에 따라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다.

특히 점차 심화되는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귀농인이 자금지원 요청시 최대 2년 간 1천명에게 대출 금리의 최대 2.0%p까지 금리를 우대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돕고 1천개의 청 · 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농촌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농협 관계자는 "전 국민이 가입에 동참해 농촌 일자리 창출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귀농start' 입출식통장은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대 2.0%의 금리를 제공하고, 예금 · 적금상품도 귀농 · 귀촌인에게 0.2%p의 우대금리를 제공 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귀농 · 귀촌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귀농 귀촌종합센터」와 제휴를 맺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협 인터넷뱅킹 의「귀농귀촌 (은퇴)설계방」을 신설해 팜스테이, 주말농장, 정부 및 지자체 지원책 등에 대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더불어, 실제 농사환경을 반영한 국내 유일의 모바일 농장경영 게임 레알팜(realfarm)의 '첫걸음 지원 선물세트' 아이템과 전원생활 체험 여행, 귀농 · 귀촌 정보를 담은「전원생활」1년 정기구독권, 농산물꾸러미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출시기념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아산시배연구회 풍년농사 준비 완료

아산시 배연구회(회장 김수열)는 내년 풍년농사를 기약하고 아산시배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일 과수원용 농약방제기 무상 점검 및 수리를 지역농협(원예조합, 둔포농협, 음봉농협) 협조로 관내 주산단지인 둔포, 음봉지역에서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했다.

금번 점검 및 수리는 지역 내 농기계 수리업체와 더불어 시행하는 행사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한기에 과수방제용 SS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부동액, 엔진오일 및 기타 부품을 교체 및 수리를 해줌으로 배농가에 실익을 제공, 약 70여대의 기계를 점검 수리했다.

김수열 회장은 "내년 농사도 더욱 열심히 하여 꼭 풍년농사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중부권의 대표적인 배 주산단지인 아산시는 음봉면, 둔포면 일원에 약 750ha 면적에 700여 농가가 배농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자생조직으로 배연구회 210여명의 회원이 참여 중이다.

아산=리량주기자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중기청, 나들가게 육성 선도 기초자치단체에 3년간 최대 8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2016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함께 할 기초자치단체를 내년 1월 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나들가게 육성 방향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나선 것이다.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육성 및 사후관리 역량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 중 나들가게 점포수 20개 이상과 40개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비나들가게(일반슈퍼)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이 되면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청시 나들가게가 10개 이상이고, 비나들가게의 나들가게화 조건

총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20%를 부담하고, 국비를 최대 8억원 한도(20개 이상은 4억원 한도)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는 나들가게 모델숍 지원, 점포 건강관리, 지역 특화상품 개발 등의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등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패키지 사업은 선택형으로는 ①나들가게 모델숍 지원 ②나들가게 건강관리(진단, 컨설팅, 시설개선)와 공 통으로는 ③교육, ④지역 특화상품 개발 ⑤부가서비스 확충 및 홍보 ⑥나들가게 조직화 지원 등이다.

지역특화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으로 ①사회복지시설과 나들가게 거래 활성화, ②'지역 나들 상품권' 운영 등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기관으로서 독자수행 또는 참여기관* 위탁수행 방식을 자율 선택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 운영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우편과 전자우편(e-mail),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현장 · 대면평가를 거쳐 내년 2월 중 선정 및 협약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일호 소상공인정책국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해 지차체와 더욱 힘을 합칠 것'이며,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접목할 수 있어 향후 골목슈퍼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2015년 선도지역 지원사업'에는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강원 영월군,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제주 제주시의 6개 지역이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활발히 사업진행 중에 있다.

박봉관기자

천안시 취득세 비과세 · 감면 안내문 발송

서북구, 8월 1일~11월 30일까지 추징사유 발생하는 710건 대상

천안시 서북구는 2015년 8월 1일~11월 30일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 · 감면 혜택을 받고 고유목적에 미 사용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710건에 대하여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취득세 비과세 · 감면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안내사항이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박진서 서북구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비과세 · 감면받는 납세자중 해당 법령의 규정대로 유예기간(1년~3년)내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청양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청양군이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도 하반기 이자보조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군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받으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정부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할 수있다.

지원범위는 융자받은 원금의 2015년도 하반기 이자발생분에 대한 약정 금리의 3%이다.

군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부여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1만2300건 18억8000만원을 부과 · · 이달 31일까지 납부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1만2300건 1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12월1일 현재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이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자동차세 선납 차량이나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화물차, 승합차로 지난 6월에 1년치 세액을 모두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이고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http://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대수기자

현정화 전 국가대표 호서대에서 특강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는 아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9일 현정화 감독(한국마사회)을 초청하여 '탁구를 통해 배운 인생과 열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호서대 인재개발처는 재학생들에게 명사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강연 메시지를 통해 청년취업난 속에 있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을 갖게 하고자 이번 특강을 마련했다.

현정화 감독은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성공을 위해서는 성실함, 집중력, 꿈을 향한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을 위한 따뜻한 배려로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탁구 총감독을 맡았던 호서대 정해천 취업팀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정해천 취업팀장은 "이번 특강이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새롭게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열정과 의지를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양영자 선수와 함께 탁구 여자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991년 일본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의 일원으로 참가해 여자 단체전 우승을 일궈내는 등 한국 여자탁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인공이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기념 보고회 가져

당진시가 지난 9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귀국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아프리카 나미비아 빈트후크에서 열린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제10차 정부간 위원회에서 결정된 역사적인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의 생생한 현장 전달을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의 경과보고와 촬영 영상 상영으로 진행됐다.

또 지속적인 지원과 전승보호를 통해 기지시 줄다리기를 세계적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역할에 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경과보고에 나선 지역자원조성과 이권호 과장은 ▲2006년부터 기지시 줄다리기의 세계화 작업 ▲수차례의 심포지엄 개최 ▲동남아시아 조사사업 등을 통해 이번 정부간위원회에서 의례와 놀이로 4개국 공동등재가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기지시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에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 ▲교육 및 민속축제의 활성화 ▲중국과의 줄다리기 교류 ▲남북한 통일 줄다리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경제활성화 법안 표류…일자리 창출 '물거품'

지식인 1000인 조속한 처리 촉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지난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무려 1239일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20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갓 한 달이 지날 때였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그간 논의와 심사만 되풀이되는 등 만 3년 4개월 20일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임박, 중국의 경기 둔화, 국제유가의 끝없는 하락 등 대외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도 수출 감소, 내수 부진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마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해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교육 · 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입법이 시급한 또 다른 경제활성화법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이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제정해 기업의 선제적인 산업재편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는 등 이러한 일본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최근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경쟁국의 발빠른 움직임과 달리 입법화에 발목이 잡힌 우리의 답답한 상황에 많은 경제전문가와 지식인들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한 상태다.

지난 11월 27일에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등이 주축이 된 '경제위기에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1000명이 '미증유의 경제위기 적극 대처를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각각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 1000명의 지식인들은 "한국경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신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의 처리가 시급한데,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포로가 돼 위기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 · 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그런데 이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집권 시절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법안 처리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수 년 전 통과됐다면 약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수십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미 취직해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한 뒤 "이런 일자리창출법은 수년째 외면하면서 일자리 만들라, 일자리가 시급하다, 경제가 걱정이 된다, 맨날 이런 소리만 외치면 뭐하냐"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은영기자

내년 영동 · 부여에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조성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0일 대전 누보스타컨벤션에서 임산물 생산자, 수출업체, 수출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임산물 수출확대 전략 워크숍(주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올 한해 임산물 수출증대에 기여한 우수 수출기업인 표창과 수출탑 시상식이 마련됐다.

임산물수출 유공자로는 ㈜강문특수목재(대표 강명환)가 농림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생산성 향상과 공정 개선으로 인테리어용 특수 제재목을 일본으로 지속 수출하는 등 목재수출을 견인했다.

산림청장상을 받은 ㈜젤존푸드(대표 배인상)는 값싼 중국산에 밀려 수출이 어려웠던 우리 산나물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을 늘렸다.

이날 신원섭 산림청장은 "올해는 가뭄으로 임산물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국제환율과 유가변동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많은 임업인들이 성공사례를 만들었다."라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박봉관기자

타지자체 공동이용 세입증대

아산시소각장,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행정자치부장관상

아산시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도 지방재정개혁 성과공유 대토론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방재정 관련 전국의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례 중 예선을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대회로 이어졌으며, 아산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으로 세입증대'라는 사례로 입상했다.

아산시는 소각시설의 유휴용량을 인근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홍성군과 당진시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받고 공동이용 함으로서 인근 시 · 군은 소각장 건립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효과를 보고 아산시는 남은 폐열을 인근 제지공장에 판매하는 등 처리효율을 극대화해 연간 40억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교육청, 전국100대교육과정 우수학교 6개교 선정

교육부는 지난 9일 '2015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선정 · 발표했다.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는 학교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전국 초 · 중 · 고 중에서 우수학교 100개를 선정 · 표창하는 교육계의 가장 권위있는 상중의 하나이다.

올해에는 특히 창의‧인성교육 강화, 수업 방법 혁신, 배움을 즐기는 학생중심 교육활동 중심으로 행복을 체험하는 학교를 선정 · 발굴하는 데 심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대전에서는 대전상지초, 대전가양중, 대전남선중, 대전용산고, 대전전민고, 충남기계공고 등 총 6개교가 전국 100대 우수학교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전상지초는 '꿈을 실현하는 더(THE) 봄 행복+ 상지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창의 ·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함께 하는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다.

대전가양중은 '가양나비, 3幸으로 실현되는 행복교육'을 주제로 '여기로부터 행복(창의 · 인성 교육과 인성교육)', '다 함께 하는 행복(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즐거운 수업 개선)', '실천하는 행복(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진정한 나 그리고 나의 길찾기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다.

대전남선중은 'New Star들의 꿈 · 끼행진곡'이라는 주제 아래 행복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핵심성취기준 중심의 수업개선, 협력학습, 토론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 등을 전개한 것이 평가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용산고는 그동안 알고(지) 나누고(덕 · 건강) 성장하는(창의) '미르메학술제'를 학교특색사업으로 추진해왔다. '미르메학술제'는 학생 스스로 진로 관련 심화과제를 선정하여 소논문 쓰기와 현장 발표 활동으로 과제를 탐구하는 프로젝트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술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전민고는 행복 꿈 · 터 교육과정을 편성해 글로벌 역량, 인문과 사회 역량, 수리탐구역량, 인성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인성으로 통하는 '전민솔바람길'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감성교육, 친환경적 건강생활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이번에 영예를 안았다.

충남기계공고는 2013년부터 실전 · 창의인재양성사업학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아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 운영 및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실습(신도제제도)을 통해 실전형 기술인재 육성함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정환기자

daejeontoday.com

'청렴 청양' 위상 회복 성공

청양군, 2015년도 전국 청렴도 평가 결과 도내 1위

청양군이 충남도내 가장 청렴한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군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7.92점을 기록해 충남도 15개 시 · 군 중 1위, 전국 157개 시 · 군 중 3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적은 지난년도 평가 대비 100단계 이상 상승한 성과로 '청렴 청양'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처럼 청양군의 청렴도가 수직 상승한 데에는 올해를 '청렴 청양 위상 회복의 해'로 선포하고 ▲공직자대상 군수 청렴서한문 발송 ▲전 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 이석화 군수의 강력한 의지가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일탈행위, 각종 선거 잡음 등이 알려지면서 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난 2012년 차지했던 도내 1위의 자리를 되찾자는 공직자들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내부청렴도는 7.78점이며, 외부청렴도는 8.01점을 기록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청렴도가 더 높은 점이 특이할 만하다.

이석화 군수는 "전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향후 전국 1위의 청렴도를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한국감사협회 내부감사혁신상 수상'

aT 정상복 감사, 내부감사품질혁신에 헌신적으로 기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상복 상임감사(왼쪽)는 10일 (사)한국감사협회가 주최하는 한국내부감사대회에서 '내부감사혁신상'을 수상했다.

'내부감사혁신상'은 (사)한국감사협회에서 감사품질평가를 통해 내부감사품질혁신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상임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

2014년 1월 20일 aT의 상임감사로 취임한 정 감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통한 경영성과 창출"이라는 미션을 설정하고, aT가 농수산식품산업에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감사에 역점을 두고 감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번 수상으로 감사실과 현업부서가 합동으로 제도개선반을 운영토록 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특히 받은 자체 e-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점 등 aT의 자체감사시스템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aT에서는 이밖에도 중장기 미래 위험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전 사업담당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高리스크 감사사항을 발굴함과 동시에 개선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감사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감사기법도 도입했다.

송병배기자

귀농 · 귀촌 추진 성과 · 우수사례 공유…지원 사업 종합평가회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0일 농업인대학에서 시 · 군 귀농 · 귀촌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귀농 · 귀촌 지원 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 한 해 귀농 · 귀촌 사업 추진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굴 · 공유하고, 내년 정책 방향 및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마련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시 · 군 귀농 · 귀촌 사업 추진 상황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귀농 · 귀촌 사업 정책 방향 강의, 사업 발전 방안 토의 등이 진행됐다.

평가회 이틀째인 11일에는 귀농인의 집과 금산귀농교육센터 사업장 현장 평가 등이 열린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서동철 귀농지원팀장은 "평가회에서 참석자들이 내놓은 의견과 제안사항, 우수사례 등을 바탕으로 귀농 ·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웅기자

공주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위원 워크숍 개최

기업유치촉진위원들 역량강화 통한 기업유치활동 강화 기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민선 6기 오시덕 시장의 공약사항인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촉진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공주시 고마 컨벤션홀에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시의 각 읍 · 면 · 동의 기업유치촉진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도 공주시의 기업유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2016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또한 충청남도 김경호 기업유치팀장이 강사로 나서 수도권 이전기업과 국내 지방 신.증설기업 등에 지원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제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2016년도 기업유치 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한남대학교 김제양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다.

이날 성과보고에 따르면, 공주시는 기업 활동에 있어 손톱 밑 가시와도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환경 순위조사를 발표한 결과 공주시가 2015년도 상반기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의 기업유치 지원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지방지역의 경우 기업유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가 있는 기업체를 촉진위원과 함께 방문하는 등 기업이전과 투자정보 등에 대한 동향을 사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올 한 해 30개 기업을 유치, 1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정상범기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평가대회 개최 아산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지난 9일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어린이집 원장 및 조리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어린이집 우수 조리원 4명과 우수 급식시설 8개소에 대해 아산시장상을 수여했다.

서산소방서, 한마음 화합 행사로 소통의 장 마련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가 팔봉산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전 직원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상지초, '등굣길 안아주기' 캠페인 10일 오전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학교 7단지 쪽 출입구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교통안전 지도를 목적으로 유성경찰서와 함께 '등굣길 안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주서, 지능 · 경제범죄수사팀 하반기 '베스트 수사팀' 선정 공주경찰서(경찰서장 이안복)는 충남지방경찰청 15개 경찰서 중 공주서 지능 · 경제범죄수사팀이 2015년 3 · 4분기 통합 베스트 수사팀' 으로 선정되었으며, 수사과장(경감 심종식)이 '베스트 리더' 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청양경찰서, 성희롱예방 고충심의위원 위촉 청양경찰서(서장 조기연)는 10일 성희롱예방 심의위원으로 청양군 새샘가족상담센터 정묘섭 상담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총연맹 서구지회 부설 자유평생학교 9기 수료식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부설 자유평생학교 권영국 교장은 10일 오전 11시 김영문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평생교실에서 어르신 대상 문해 교육 9기 수료식을 실시했다. 올해로 9년째 진행하고 있는 자유평생학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한글 기초교육과 수학기초 교육을 진행했다.

겨울철 안전사고 선제적 대응 최선

금산소방서, 인명 피해 최소화 위한 대책 추진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동절기 예상되는 재난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의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저한 준비 및 예찰활동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동절기 인명구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산지역 산악 사고는 최근 3년간 1월 ~ 2월에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있으며, 얼음낚시 중 얼음판 깨짐 등 수난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2월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동절기 특성에 맞는 인명구조 대책을 마련해 선제적 대응과 금산소방서 여건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난사고 발생장소 안내판 설치로 경각심 고취, ▲산악사고 다발장소 홍보활동 강화 및 현수막 설치 ▲산악사고 대비 동계 인명구조훈련 실시 ▲해빙기 빙상사고 위험지역 예찰활동 강화 등 사전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금산=김남규기자

축제장 · 키즈카페 등 에어바운스, 안전관리 '미흡'

한국소비자원, 설치상태 허술하고 안전요원 없는 곳 많아

축제장, 키즈카페 등에 많이 설치되는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놀이기구)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전국에 설치 · 운영 중인 에어바운스 20개 업체(안전성 검사대상 4개, 안전성검사 비대상 16개)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85.0%) 업체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에어바운스 표면과 박음질 부분이 훼손되어 공기가 누설되고 있었고, 8개 업체는 기구가 전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11개 업체는 송풍기가 멈출 경우 에어바운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풍기 접근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풍속 10m/s이상일 때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외에 설치된 12개 업체 중 풍속계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3개 업체에 불과했다.

유원시설업자는 이용정원을 초과하여 유기기구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운행 중에는 이용자의 이상행동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11개(55.0%) 업체가 안전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2개 업체는 이용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6개 업체는 안전요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4개 업체는 1명의 안전요원이 2개 이상의 기구를 동시에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에어바운스 규모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은 후 관할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신고나 허가를 받은 후에 영업할 수 있으나 10개(50.0%) 업체가 검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검사 대상 에어바운스는 설치 전 검사와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설치기준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영업전 안전성검사 비대상임을 확인하는 검사이외에는 안전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에어바운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유원시설업 미신고(미허가)영업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당진署, 불법체류 여성고용 성매매업소 업주 등 2명 검거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로 위장,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박모씨(56세)와 중국인 여성 A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부터 3월 부터 현재까지 당진시 송악읍 유흥단지 내 상가건물 3층에 밀실 8개와 샤워실을 갖춰 놓고 마사지업소로 위장, 중국인 여성 1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에게 1회에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 주변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최근수기자

충남도내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무더기 철퇴

합동단속 통해 17곳 적발…사법기관 고발 ·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충남도는 최근 도내 8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민 · 관 합동단속을 실시, 17개 사업장에서 환경법령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1곳,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곳, 배출시설 가동 개시 미 이행 2곳 등이다.

또 대기 자가측정 미 이행 1곳과 운영일지 미 작성 1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6곳, 배출 허용기준 초과 1곳, 기타 법령 위반 4곳도 적발했다.

도는 이들 적발된 사업장 중 5곳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조업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도 홈페이지에 위반 사업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 · 대기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등 환경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 · 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포=이지웅기자

대덕구, 공공기관 청렴도 대전 자치구서 3년 연속 1위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12점(2등급) 기록

대덕구가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3년 연속으로 대전시 5개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덕구는 내부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12점(2등급)을 기록, 대전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고 점수로써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하여 대전광역시 내 종합청렴도 1위를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를 내기까지 대덕구는 연초부터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청렴이행클린콜제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청렴마일리지제 ▲청렴이행 진단의 날 운영 등 청렴시책 추진에 전 직원들이 하나되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가 지난해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구 공직자들의 청렴실천과 희망대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청렴 시책을 펼쳐 전국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아산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홍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 · 홍보 '한창'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 · 홍보에 한창이다.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 · 홍보 중이며, 각 마을 이장단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 주방 ·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금소원 "소비자단체 NGO, 운영 기준 제정 등 개혁 필요"

소비자단체의 '명함회장', '바지사장' 식 운영, 제재 · 처벌 필요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운영 및 지배구조 등과 관련된 모범 규준을 마련하여 소비자단체의 건전하고 상식적이며, 발전적인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는 현재 16개 소비자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은 과연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내 · 외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비상식적인 '바지사장' 식 운영이나 나눠먹기식 대표 운영, 장기간 1인 지배로 인한 후진성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의 하나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처벌 · 제재가 필요하며, 10년 이상 실질 대표직 자리 유지 제한, 65세 은퇴 등과 같은 개혁적 조치를 규정하거나 스스로 지키면서 세대교체를 통한 소비자단체나 NGO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비상식적인 운영은 물론, 법적 근거도 없이 일부 단체를 배제하는 등의 기득권 유지와 밥그릇 챙기기 행태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협의회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일부 소비자단체 등은 등기도 하지 않은 자에게 '회장' 이라는 직함을 주고 이를 활용하여 숨은 실세가 '바지 사장'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원하고 상을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회적, 가정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자나 기소 받은 자가 운영하는 소비자단체나 NGO가 있다면, 관련된 제재를 가하거나 단체 공개를 통해 건전한 소비자 단체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소비자단체나 NGO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사와 제재를 통해 합리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단체 등이 제대로 운영하고 역할을 다 하는지 평가하여 정상적인 단체에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김정환기자

배재대,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하는 화합의 하모니

한 · 일 청소년 합동 합창 음악회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화합의 하모니를 펼친다.

대전시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가 주최하고 대전국제교류센터(DIC)와 한국음악협회 대전시지회의 주관아래 진행되는 'We Together 2015 한일 청소년 합동 합창 음악회' 가 11일 오후 2시 배재대 21세기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개교 10년을 맞은 대전구봉중학교 합창단과 창단 50년의 전통 깊은 일본 요코하마 소년소녀 합창단이 출연한다. 대전구봉중학교 합창단은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지금 이 순간', '깊은 저 하늘을 날아서' 등 3곡을 선보인다. 또 요코하마 소년소녀 합창단은 'Hotaru(반딧불이)', 'Tonarino Totoro(이웃집 토토로)', 'Sakura(벚꽃)' 등의 6곡을 무대에 올린다. 이와 함께 두 합창단은 합동으로 '아리랑과 ' 투모로우 '를 합창할 예정이다.

대전국제교류센터 이봉지 센터장(배재대 교수)은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합창단 공연을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합창단 공연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 전달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가져

건보공단 대전동부,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지사장 김양식)는 10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을 맞아 반부패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직원대표의 반부패 ·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과 청렴실천 우수사례 격려, 삼성동 일대 거리캠페인으로 진행됐다.

김양식 지사장은 "청렴 분위기 확산과 부패방지 노력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청렴경영 실천의 강한 의지를 표했다.

송병배기자

직장인 80% "연말보너스잔치 남 얘기일 뿐"

<인쿠르트>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직장인 연봉에 상여금 포함돼 있어

올 연말 보너스를 기대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많지만 정작 21%의 직장인만이 연말 보너스를 지급 받는다는 조사 결과다. 79%의 직장인들은 연말에 쏟아지는 보너스 구경도 못하는 것.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는 직장인들이 연말 보너스를 얼마나 받는지 알 수 있는 설문조사 '직장인 연말 보너스 지급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직장인 중 '급여, 보너스' 담당자도 11%(72명) 있었다. 그 결과 보너스로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직장인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79%는 회사에서 올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21%만이 지급한다고 답했다.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그 이유에 대해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서(31%)'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연봉에 상여금 포함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회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22%)', '경기가 좋지 않아서(14%)' 순으로 답했다. 다만 보너스 대신 '연말 회식 및 송년회(21%)'를 실시한다고 답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가족 외식 지원', '칭찬 한마디' 등이 있었다.

반면 보너스를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지급 이유로 '직원들의 노고 격려 차원에서(34%)', '상여금으로 정해져 있어서(34%)'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금액은 평균 '10만원~50만원'을 선택한 비율이 27%로 가장 많았다. 200만원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비율도 19%로 적지 않았다.

인크루트 임경현 마케팅본부장은 "과거 연말이면 보너스 잔치를 벌였던 것과 달리 최근 경기 악화로 연말보너스를 받는 직장인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뿐 아니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어려워진 경기에 힘겨운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인크루트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진행됐으며 총 참여인원은 627명이었다. 이 중 직장인은 490명, '급여, 보너스' 담당 직장인은 72명이 있었다.

이정복기자

홍성Wee센터 "행복과 감사의 나눔, 한 해의 활동 돌아보는 시간 가져"

2015년 꿈키움 멘토링 종합보고회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인복) Wee센터는 지난 8일 지원청 중회의실에서 꿈키움 멘토-멘티를 대상으로 "2015 꿈키움 멘토링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

10일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보고회는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꿈키움 멘토링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제언을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함께 활동한 서로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Wee센터는 지난 5월, 다양한 분야의 직장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멘토단과 학교폭력 및 학업중단위기에 놓인 학생 및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아 강화 및 소통에의 관심을 두어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1로 결연을 맺고 수개월간 멘토링 활동을 이어왔으며, Wee센터 담당자와의 소통, 각 멘토-멘티 간의 소통의 장에 참여해 왔다.

내포=이지웅기자

충남남부평생학습관, 진로코칭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 종강 12월 9일을 마지막 수업으로 진로코칭 지도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종강하였다. 강의는 하반기 중 매주 수, 금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총 28회로 운영되었으며, 논산시 특화 전문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였다.

유아보육 대책 대해 공조체제 '가동'

세종시교육청 · 행복청, 만 3 · 4세반도 1학급씩 추가 증설

세종시와 시교육청이 유아보육 대책에 대해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우선 세종시는 내년 2월까지 LH에서 공급한 보육시설 용지에 대규모 민간 어린이집 2개소의 개원을 지원하고, 신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민간어린이집 10개소도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관리 사무소와는 청사 직장어린이집 정원을 80명 늘리도록 협의했고, 가정어린이집 인가 기준 완화, 임대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지 인가기준 변경 등을 통해 어린이집 추가 개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은 3개유치원9고운유,두루유,존촌유)에 각 1학급씩 총 3개학급을 증설해 취학직전의 만 5세 아동을 모두 수용할 수 잇도록 조치했다.

만3~4세 유아의 추가 수용을 위해 늘봄유치원에 4세반 1학급, 고운유치원에 3세반 1학급 등 총 2개학급을 추가로 증설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총 69개원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특화된 유치원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행복청, LH)과 협의하여 6생활권 내에 숲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청양교육지원청, 학생이 행복한 명품학교 만들기 운영 성과

2015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초등 2교 선정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은 2015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수정초, 목면초 2교가 선정되는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성과는 학생 중심 명품학교 만들기 특색사업을 운영하여 소규모학교가 많은 청양 지역 학교의 특색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김은자 교육장은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며, 인성과 학력을 양면으로 하는 특성화된 명품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당진 고대중, 솔로몬 로파크 진로체험

당진 고대중학교(교장 이제복)는 지난 9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솔로몬 로파크 견학을 실시했다.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에 위치한 솔로몬 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 교육 테마 공원으로, 이곳에서는 입법체험, 모의재판, 교도소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과 법규를 정립한 후 국가 작용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리고 모의재판을 직접 체험 하면서 재판의 과정, 법 관련 직업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번 솔로몬 로파크 진로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역량을 키우는데 큰 받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 관련 다양한 직업을 탐색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설계 탐색의 기회를 부여하는 뜻 깊은 진로체험이 됐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교육청, 2016학년도 정시전형 대비

「365대입상담전문가그룹」 연수로 고3 담임을 대입 전문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5년 12월 1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5개 거점학교에서 2016학년도 대입 정시전형을 앞두고 고3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365대입상담전문가그룹」연수를 실시한다.

이 번 연수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T/F팀에서 연수 자료를 개발하고, 대전가오고, 대전여고, 대전괴정고, 대전둔원고, 대전둔산여고 등 5개 거점학교에 파견하여 고3 담임교사의 대입 정시전형 상담 역량을 강화하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변화된 2016학년도 정시전형의 유의사항 및 정시모집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3 담임교사의 대입 상담 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및 대전&·충청권의 주요 대학의 전형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고3 교사들에게 대입 상담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 유명익 중등교육과장은 "대입 진학 상담은 고3 담임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교사들이 「365대입상담전문가그룹」 연수를 통해 대학별 전형 특성과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고려한 맞춤형 대입 상담 역량을 키워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대입 상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금산교육지원청 '2015 행복금산 축제의 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은 지난 9일 금산 다락원에서 대공연장 및 전시회장에서 금산관내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5 행복금산 축제의 날'을 개최했다.

전시회장에는 각 학교의 교육성과 우수사례 부스를 설치하여 일반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사전공연으로는 3년째 교육부지정 뮤지컬학교를 운영 중인 진산초 뮤지컬 학생동아리가 '소원나무 Ⅱ'를 공연하여 신비한 나무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의 멋진 여정을 선사했다.

금산=김남규기자

공주정명학교, 2015 희망캠프 참가

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 제공

공주정명학교(교장 서종열) 초, 중, 고등학교 113명은 12월 9일 공주시 연수원길에 위치한 충청남도학생수련원에서 실시하는 '2015 희망캠프'에 참가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웅비관, 매난실, 국죽실에서 3모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천연 염색 체험하기, 카드 만들기, 뱃지 만들기 활동을 돌아가면서 체험한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완성품들을 보며 어느 때 보다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행사에 참가한 조병규(고2) 학생은 "학교 가까운 곳에서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걸 처음 알았다. 천연 염색으로 예쁜 스카프도 만들고, 선생님께 드릴 카드도 만들었다. 친구들과 함께하니 더욱 재미있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2015 희망캠프는 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함양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교육지원청, 동아리 · 고3 이웃사랑 실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규) 기록동아리에서 지난 9일, 복지기관 '시민요양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산교육지원청은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소속 동호회 및 동아리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록동아리 '에듀아카이브' 역시 양로시설 복지기관인 시민요양원을 방문했다.

동아리 회원들은 각종 생필품과 주전부리 등을 전달하고, 어깨 안마와 말동무 해드리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방문을 반기며 주전부리를 권했고, 회원들은 고향집을 방문한 듯 도란도란 정담을 나누는 등 훈훈한 이웃의 정을 나누었다. 한 회원은 "연말에 어르신들을 보니 부모님 생각이 난다. 조금이나마 추운 겨울을 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감회를 밝혔다.

지난 9일, 지역기관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체험프로그램으로 온양용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16명이 참여해 도고옹기발효음식전시체험장에서 김장담그기 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체험학습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이후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우리의 전통문화인 김장의 역사와 필요성, 종류, 김장담그는 방법에 대해 이론적인 수업을 듣고, 직접 학생들이 김치속을 버무려 배추에 넣어 김치를 만들어 서로 직접 담은 김치의 맛도 보며 김장 담그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NAVER 들어보세요! 네이버스토리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검색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사랑으로 뿌리내린 천사나무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이 올해 연말행사로 사랑의 천사나무 행사를 실시한다.

●동 정●●●

2015 행복컨퍼런스

안희정 충남도지사= 11일 오후 2시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열리는 2015 행복컨퍼런스 참석.

정책조정회의 주재

이춘희 세종시장= 11일 오전 8시 40분에 집현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오후 5시에 창조센터에서 청춘조치원 나눔회의 주재.

2015년 자립생활 기념대회

임상전 세종시의회의장= 11일 오후 3시 40분 수정웨딩홀에서 열리는 2015년 자립생활 기념대회 참석.

사회복지관 송년행사

김석환 홍성군수= 11일 오전 10시 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관 송년행사 참석, 오전 11시 홍성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홍성희망나눔봉사센터 17주년 개관식 참석.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

황선봉 예산군수= 11일 오전 10시 30분 더스타웨딩홀에서 열리는 2015년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숍 참석.

충남도, 구제역 방역 위반 농가 7곳 10건 적발

"구제역 재발 방지… 의식 전환 중요"

충남도는 도내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실태 특별 점검을 실시, 위반 농가 7곳 1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구제역 바이러스 활성화 시기를 맞아 도내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제역 백신 접종 실시 여부, 예방접종 실시 대장 기록 · 보관 여부, 소독시설 설치 여부 및 축사 내 · 외부 정기 소독 실시 여부 등이다.

적발 내용은 정문 소독시설 미설치 4건, 소독 실시 기록 미작성 3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 미작성 3건 등으로, 도는 위반 농가 10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형수 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우제류에 대한 예방접종과 농가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요구된다"며 "축산 관련 차량 등의 빈번한 출입과 계절적 취약 시기, 과거 발생사례 등을 감안할 때 도내 구제역 재발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만큼, 선제적인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또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도와 시 · 군, 도 가축위생연구소, 방역지원본부, 축협 등 19곳에 구제역 · AI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지난 10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소독 미흡 등 방역 위반 23농가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구제역 확산 방지 및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내포=이지웅기자

세종시, 쌀 고정 · 밭농업 직불금 39억 8200만원 지급

올해 전년 대비 17.4% 상승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5년 쌀 고정 및 밭 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중 해당 읍면동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총 8,339농가(농지 4,952ha)에 39억820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전년 대비 5억9000만원(17.4%)이 늘어난 것이다.

사업별로 보면 쌀고정 직불금은 5,199농가(3,706ha)에 35억8300만원, 밭 농업 직불금은 3,140농가(1,246ha)에 3억990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쌀 고정 직불금의 평균 지급단가가 ha당 100만원(2014년 : 90만원/ha)으로 인상되고, 신규 신청농가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밭 고정 직불금이 신규로 도입되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 ·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밭 직불금 단가가 ha당 50만원(2014년 : 40만원/ha)으로 오르는 등 지급대상 농가와 면적이 늘고 지급 단가도 인상됐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내년부터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3~6월이었던 직불금 신청 시기를 2~4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환기자

행복도시, 영유아 보육 위해 머리 맞대다

행복청 · 세종시 · 세종시교육청 특별팀 구성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영유아 보육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유치원 취원을 원하는 유아를 세종시교육청이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세종시 · 세종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특별팀(태스크포스, TF)을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행복도시 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후 즉시 어린이집 개관이 가능하도록 준공 전 어린이집 실내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세종시와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시설용지 공급 시 민간어린이집 착공기한을 정해 보육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육수요를 고려해 보육시설용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6생활권에는 세종시교육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 숲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내년 2월까지 민간 대규모 어린이집 개원 조력과 공동주택 관리동 내 미설치된 민간 어린이집 개원 독려 및 국공립 전환, 직장 어린이집 정원 수 증원 및 가정 어린이집 인가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7곳(2016년 2곳, 2017~2018년 5곳, 2019년 이후 11곳)을 개원하고 각 생활권의 보육시설 용지를 직접 매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광역복지지원센터(5곳)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 3월 유치원 취원을 희망한 만5세 전원을 수용하고, 만3세 · 만4세 추가수용을 위해 늘봄유치원(2개반도 증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행복도시 내 단설유치원(22곳)을 총 69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가 명품 교육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 기자

세종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회장 김은기)는 10일 오전 11시 수정웨딩타운에서 이춘희 시장, 임상전 의회의장, 시의원, 새마을가족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대회는 한해동안의 새마을운동 추진성과를 종합결산하고 , 헌신봉사한 일선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제2새마을운동 실천을 결의하는 대회로 진행됐다.

본행사에서는 대통령축하메시지, 추진실적 영상보고와, 새마을포상, 대회사, 축사, 제2새마을운동 실천다짐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부대행사에서는 지도자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지도자 장기자랑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새마을회 김은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새마을운동 45년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이 땅위에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역사는 나눔,봉사,배려 정신을 더해 제2새마을운동으로 국민행복, 선진한국을 이룩하는 위대한 국민운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조직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제2새마을운동의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4대 중점운동인 문화공동체운동, 이웃공동체운동, 경제공동체운동, 지구촌공동체운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지역농산물 가공교육 인기

예산군, 차별화된 레시피 · 로컬푸드로 만든 음식이 최고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가공교육이 군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농산물 이용 가공교육'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장아찌와 특색김치를 주제로 진행되며 토마토, 무, 산야초, 마늘, 더덕 등 지역생산품을 재료로 가공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 진행된 첫 번째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토마토김치와 장아찌, 알타리무 피클을 만들었으며 8일 교육에서는 건강칼슘 동치미와 청양고추 발효청을 넣은 콜라비 밤깍두기, 김장아찌 만들기 실습을 진행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기술센터는 오는 15일 발효청을 이용한 산야초와 깻잎 저염 장아찌를 만들 예정이며 22일 마늘 초절임과 더덕고추장 장아찌 만들기 실습을 끝으로 가공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을 진행 중인 이정숙(정푸트 컨설팅) 강사는 매 교육마다 늘 먹던 것과는 다른 차별화된 레시피를 제시해 교육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이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가공교육은 항상 인기가 좋아 교육생 선발이 어려울 정도"라며 "내년에 설치예정인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와 연계해 가공의 중요성을 알리고 응용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웅기자

척척세종 민원처리반 일일 체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일일 체험에 나선다.

세종시는 간부공무원들이 찾아가는 현장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민생현장을 직접 피부로 느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세종시는 10일 정무부시장을 시작으로, 11일 행정부시장, 15일 기획조정실장, 17일 행정복지국장, 21일 시민안전 · 균형발전국장, 23일 경제산업 · 건설도시국장의 일일체험을 진행한다.

참가 공무원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 파손된 도로 · 교통 시설물의 개 · 보수 업무와 마을회관 · 경로당 및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등 척척세종 역할을 하게 된다.

10일 오후 홍영섭 정무부시장은 조치원읍 정리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불량인 콘센트와 전등기구를 보수하고 조치원역 원리 역전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파손된 규제봉을 교체했다.

홍영섭 정무부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척척세종과 함께 민원처리에 참가해 많은 것을 느꼈다."며 "보다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척척세종은 현재까지 총 2,170여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8월부터 서비스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으로 확대해 750여건(247여 가정)의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했다.

세종=김정환 기자

2016 충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접수 시작

내년 1월 5일까지 NCAS 통해 가능

충남문화재단(이사장 안희정)은 도내 문화예술 활동이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신청 공고를 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문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신진예술창작지원사업,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생활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경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문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은 문학, 시각, 사진영상, 서예,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교류 총 10개 분야의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며, 신진예술창작지원사업은 35세 이하의 신진예술가와 설립 3년 이내의 신생단체의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예술창작 및 보급활동을, 생활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아마추어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 등을 지원한다.

특히, 충남향토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소액다건(少額多件)지원 예정이며, 전문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의 시각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원예술 및 예술교류 지원은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타 지역 예술계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는 점이 이번 공모의 특징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6일 오후2시, 충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을 시작으로, 21일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 29일 부여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총 3회 진행한다.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cacf.or.kr)이나 충남문화재단 예술지원팀(041-630-2942)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포=이지웅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세종시-KEB하나은행 외자 유치 협약

해외지점 활용 홍보시스템 구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일 세종시청 5층 집현실에서 KEB 하나은행(충청영업그룹 대표 오상영)과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세종시의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 주요거점 지점을 통한 세종시 투자환경 홍보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및 무료 컨설팅 등을 실시 지원한다.

세종시는 지역내 외국인투자 금융수요가 있는 경우, 하나은행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협의하기로 하고, 하나은행과 함께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기획, 추진하기로 했다.

오상영 대표는 "KEB 하나은행이 보유한 국내 최다의 해외 네트워크,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세종시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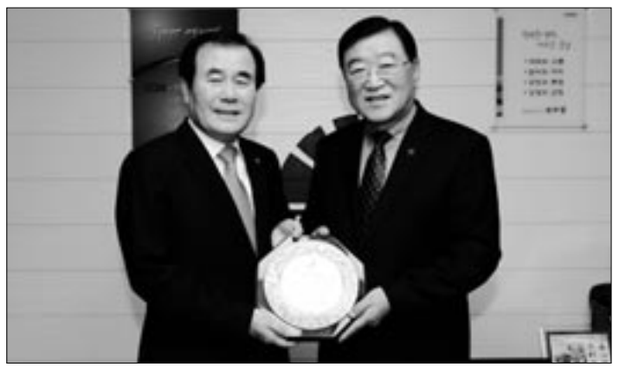
이춘희 시장은 "민간기관의 공조를 바탕으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구 외환은행(KEB)과 합병한 하나은행은 구 외환은행이 보유했던 미국, 영국, 일본 등 24개국 126개 법인 · 지점 · 사무소를 인수했다.

세종=김정환 기자

홍성교육 한단계 도약 기틀 마련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김석환 군수 감사패 받아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9일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날 감사패는 김지철 교육감과 조인복 홍성교육장 등 교육청 관계자 6명이 군청을 방문해 김석환 군수에게 전달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남다른 애정으로 홍성 교육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경비 지원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홍성군은 올해 국도비를 포함한 85억원의 예산으로 우수인재 육성과 방과후교실, 체육시설확충, 학교급식경비 지원, 취약계층 학생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 8개 분야 45개의 교육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까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홍성사랑장학회 기금 100억원 조성을 위해 범군민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포=이지웅기자

동정

전국체전 운영위원회

복기왕 아산시장=11일 오후 2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운영위원회에 참석.

지역총화 협의회

김홍장 당진시장=11일 오후 5시 시청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년 아동청소년기관 사업보고회에 참석, 오후 6시 30분 설악웨딩타운에서 열리는 4/4분기 지역총화 협의회에 참석.

운영위원회

유기준 아산시의회 의장=11일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83회 제2차 정례의 제3차 본회의에 참석, 오후2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2016 양대체전 운영위원회에 참석.

지역총화 협의회

이재광 당진시의장=11일 오후 6시 30분 설악웨딩타운에서 열리는 4/4분기 지역총화 협의회에 참석

화합행사

한상기 태안군수=11일 정오 태안읍 반곡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귀농·귀촌인 집들이 화합행사'에 참석

중간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11일 오후 3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칠갑호 관광명소화사업 자연사전시관 중간보고회를 주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김은자 청양교육장=11일 충청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참석.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태안군, 2015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보다 2개 등급 상승

태안군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2개 등급이 상승한 2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태안군은 종합청렴도 7.87점을 기록해 2등급(우수)을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4등급에서 무려 두 계단을 뛰어오른 성적표다.

군은 민선6기에 들어서면서 '원칙 중심' 행정을 군정 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기본이 바로 선 공직자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공직자 혁신방안 대책을 수립·실천해왔다.

특히, 전 직원 683명이 반부패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지침을 개정해 공금횡령·유용·금품수수 시 고발 기준을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부서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현장에 함께 있던 직원까지 처벌키로 하는 등 비위공직자 징계처분을 강화했으며, 이밖에도 ▲맞춤형 예방감사 실시 ▲복무기강 점검단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98종의 민원사항에 대한 자체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등 공직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은 원칙 중심의 군정운영을 실천해 온 민선6기 태안군의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직자 친절 교육과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군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태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유관단체 등 전국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면접조사 등을 통해 실시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 잇따라

당진시, NI스틸·서진산업·미래엔서해에너지·맥키스컴퍼니

㈜NI스틸(대표 배종민), 서진산업㈜(대표 김양중), 미래엔서해에너지(대표 김영진), ㈜맥키스컴퍼니(대표 박근태)가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나눔 문화확산 및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0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성금과 쌀을 기탁했다.

㈜NI스틸은 3천만원, 서진산업㈜은 2천만원, 서해엔미래에너지는 1천만원, ㈜맥키스컴퍼니는 쌀222포(600만원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과 기부물품은 당진시 복지재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가정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골고루 배분해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

참여기업 관계자는"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돕기 성금을 출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기업들 이웃사랑 동참

㈜우룡실업·㈜맥키스컴퍼니·㈜원지

㈜우룡실업(대표 이홍엽) 직원일동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9일 아산시를 찾아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총 330만원으로 지역의 소외계층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주)우룡실업은 아상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2008년부터 장학사업은 물론 성금모금, 행복키움추진단 후원회원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깨끗한 아산만들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대표 박근태)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9일 아산시(시장 복기왕)를 찾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난 4월에 아산시와 ㈜맥키스컴퍼니 간에 체결한 후원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2015년 상반기 지원이 진행된 데 이어 연간 총 1000만원 상당의 아산맑은쌀을 저소득가정이 지원받게 됐다.

㈜맥키스컴퍼니는 충청지역의 향토기업으로 이번 후원 외에 에코힐링황토길조성사업, 저소득가구 학생 급식비지원,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아산맑은쌀' 브랜드를 후원처의 대표적인 생산품인 「O2린」의 보조라벨로 홍보함으로써 아산시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포장전문기업인 (주)원지(대표 김영경)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9일 김장김치 20박스(10㎏들이)를 염치읍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임동희)에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김치는 관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화성면 이장회의 열려

동절기 화재예방·안전사고점검 위해 실시

청양군 화성면(면장 최재영)은 지난 9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겨울철 화재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이장회의를 개최 했다.

면은 이날 회의에서 올 겨울 잦은 눈 소식 예보에 따른 눈치우기 솔선수범과 화목보일러 안전점검 및 사용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재영 면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고 없는 겨울보내기에 이장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하며 면내 수시 순찰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한 화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군 통합체계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나서

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간 결속 강화키로

태안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군은 지난 9일 태안군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한상기 군수와 관계기관장,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성과보고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순주)가 주관한 이번 보고대회는 최근 학업중단·가출·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들의 일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역할을 강조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성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및 관심도를 높이고 현실성 있는 교육 실시를 통해 예방에 적극 나서는 한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기관 간 결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상기 군수는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구축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사회안전망의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도 청소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태안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당진시립도서관 겨울방학특강 개강

건전한 독서문화 향상과 자아개발위한 기회 제공

당진시립도서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독서문화 향상과 자아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겨울방학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당진시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관내 공공도서관 3개소와 공립작은도서관 9개소에서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운영된다.

강좌는 ▲그림책 놀이터 ▲영어 동화 스토리텔링 ▲꿈을 키우는 책읽기와 논술 등 총 48개 강좌로 총 5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독서능력 향상과 학력증진은 물론 성인들의 문화예술 및 정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며, 수강생 모집은 도서관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재료비 외에 별도 본인 부담금은 없다.

도서관 관계자는"이번 겨울방학 특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평생 배움의 즐거움을 얻는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관련 문의는 당진시립중앙도서관(360-6925)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http://www.djecs.go.kr)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송악면 약사사와 후원 협약

아산시 송악면행복키움추진단(단장 박성각)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9일, 약사사(주지스님 원묵)와 수시 물품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윤광덕 복지이장(송악면 이장협의회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번 협약으로 약사사는 라면 100박스와 세면용품 60셋트를 송악면행복키움추진단에 후원하게 됐으며 향후 각 마을 복지이장이 복지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사 원묵스님은 "우리주변엔 아직도 불우한 이웃이 많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각 단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복지이장과 협력으로 어려운 이웃의 희망을 찾고, 듣고, 돕는 송악면 행복키움추진단이 되겠다"고 전했다.

남장희 송악면장은 "약사사와 복지이장 및 행복키움추진단이 협력해 행복 나눔 송악면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더 살기좋은 송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따뜻한 온정으로 추위를 녹여요

청양군, 어려움 처한 이웃들 돕는데 앞장‥훈훈함 더해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성기중(운곡떡방앗간)씨가 매년 겨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데 앞장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0일 운곡면(면장 윤주원)은 성기중씨가 기탁한 100만원으로 마련한 난방유를 관내 여섯 가정에 전달했다.

장애인 가정인 황모씨는 "기름이 아까워 보일러를 잘 틀지 못했는데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돼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청양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모범적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성기중씨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축복"이라며 앞으로도 이웃돕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주민생활불편 방치폐기물 일제 수거

천안시 서북구, 27일까지 98톤 처리 계획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관내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북구는 지난달 말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방치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98톤 규모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12월 27일까지 폐기물을 집중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방치폐기물은 대형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침대, 소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혼합폐기물로 가까운 지역주민들로 부터 버려지거나 차량을 이용하여 사람 왕래가 많지 않는 곳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야간 시간대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아 행위자 찾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서북구는 방치폐기물 일제 전수조사를 봄철에 실시하여 95톤을 수거하여 처리한 바 있다.

그동안 서북구는 천안시새마을회, 천안적십자봉사회, 바르게살기운동천안시협의회 등과 협약을 맺고 '함께해요 깨끗한 천안만들기', '청소현장체험 가족패밀리' 등 특수시책을 펼쳐 연인원 5700여명이 참가하여 주택가와 대로변 등 상습쓰레기투기지역에서 대규모 환경정화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식전환에 중점을 두고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해 왔다.

서북구는 2016년부터 방치된 폐기물을 우선처리하고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불법투기의 문제점을 행위자 스스로 인식 하도록 해 폐기물 무단투기와 장소가 고착화 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조만호 위생청소과장은 "방치폐기물은 각종 혼합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어 전문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라며,"시민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방치폐기물이 내 집근처에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서천군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0일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원장 및 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및 의무보험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무료안전교육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위험이나 재난이 발생할 때 관계자들의 대비·대응·복구활동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교육 내용은 ▲ 시설물 및 소방기구 안전점검 요령 ▲ 실제사고사례 ▲ 화재 시 대처 및 피난요령 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의무보험 이해교육도 병행되어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태원 사회복지정책팀장은 "실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은 위기상황 대처능력에 취약하고 집단생활로 인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교육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낙흥 부군수는 "이번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현장대처 능력을 키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천=김태선기자

부여읍 독거어르신들 행복한 잔치

"희망 3·나눔 지원 사업"으로 점심식사 등 제공

부여읍(읍장 추정호)에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Good! 부여읍 해피바이러스 특화사업 "희망 3·나눔 지원 사업" 일환으로 점심식사, 미용서비스, 한방 침 3가지 서비스를 저소득 독거어르신 12명에게 지원했다.

신마산아구(대표 유인숙)에서는 겨울철 어르신들에게 별미인 구수한 밴댕이찌개로 특별요리를 선물했고, 진미용실 조광임 대표와 진아미용실 윤민자 대표는 미용봉사를, 원당한의원(대표 박진무)은 침에서부터 물리치료, 전기치료까지 맞춤형 한방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부여읍은 해피바이러스협의체 봉사대원의 협조로 관내 음식점, 미용업체, 한의원을 중심으로 분기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피바이러스 협의체 봉사대는 "부여읍의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 후원할 예정이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 오히려 고맙다"고 전했다.

부여=한대수기자

요우커 입맛 사로잡은 논산딸기

요우커들의 핫플레이스 명동서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눈길'… 서울명동 들썩

논산딸기가 달콤·새콤한 매력으로 요우커들의 겨울입맛을 자극하며, 요우커 및 도시민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10일 서울 명동서 개최한 '논산 겨울딸기 미니 페스티벌 in 명동' 행사가 논산딸기의 명성을 재확인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황명선 시장, 박흥신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장, 윤종근 논산시농축협조합장 협의회장을 비롯, 관내 농협조합장, 딸기농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12시부터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대대적인 딸기 홍보 판촉행사와 시식 행사를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황시장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은 논산딸기의 품종 설향(雪香·눈의 향기)이미지와 연계한 산타복을 입고 열띤 모습으로 동분서주하며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홍보해 눈길을 끌었으며, 경영인 및 여성경영인 논산시연합회에서 준비한 예스민 쌀 소비촉진 행사도 많은 시민들에게 받는 기쁨을 주었다.

인기 걸그룹 달샤벳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대형 논산 딸기탑 및 20여가지의 딸기 디저트 전시회, 딸기 포토존을 설치해 행사 내내 많은 요우커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요우커 및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형 딸기 생크림 케익 만들기, 딸기 퐁듀, 딸기 산타, 딸기&머핀, 딸기주스, 딸기그릭요거트, 딸기꼬치 등 딸기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행사는 요우커 및 시민들의 오감을 제대로 매료시켰다.

또, '딸기를 부탁해'라는 코너에서는 케이블TV 올리브 '한식대첩2' 최종우승자 이영숙씨가 논산딸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전통요리를 만들고 시식행사를 진행해 행사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중국인 관광객은 "논산딸기의 달콤함에 한번 반하고, 딸기를 이용한 다양하고 예쁜 모양의 디저트에 또 한번 놀랐다"며 "오감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딸기수확체험 하러 논산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황 시장은 "이번 행사가 요우커 및 수도권 시민들이 논산딸기의 우수성과 명성을 재확인하는 홍보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논산딸기로 새로운 한류열풍을 일으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논산딸기는 2006년 논산특구로 지정, 전국 점유율 14%, 충남 점유율 42%를 차지하며 연 매출액 1,5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논산=한대수기자

천안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대폭 상승

최하위 5등급에서 올해 3등급 평가…'청렴천안' 시책 추진 성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5년 청렴도 평가에서 천안시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천안시는 외부청렴도 7.55, 내부청렴도 8.04, 종합청렴도에서 7.54점으로 지난해 종합청렴도 6.79점에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지난 3년동안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받았으나 올해 2단계가 올라 종합 3등급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구본영 시장 취임부터 '청렴천안' 구현을 목표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추진한 결과로, 시민중심의 행정이 정착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천안시가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과 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을 받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것도 청렴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천안시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대폭 개정, 최초 음주적발에도 정직까지 처벌하고 성관련 비위, 음주운전, 금품관련비위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중문책 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청렴천안'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한일 감사관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청렴도 향상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이며, 각종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준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청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청렴천안'을 기필코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청렴도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를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며 1등급부터 5등급으로 평가한다.

천안=김정환기자

드림스타트사업 보고회 열려

부여군드림스타트사업 대한 추진성과·실적 보고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9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자, 사회봉사단체, 지역주민 및 드림스타트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2015년 사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올해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들에게 지원했던 건강, 복지, 교육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및 실적을 보고했다.

또한 아이들의 작품 전시와 벨리댄스, 합기도, 방송댄스 공연 등을 펼쳐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으며, 사진전시회와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 지역복지 발전의 초석이며, 우리나라 복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드림스타트 가족은 "맞벌이로 바빠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힘들었는데 드림스타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부여군 드림스타트에서는 내년에도 저소득층 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아동과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부여 만들기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부여=한대수기자

계룡시 '2016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배포

지방세와 국세 등 세정 홍보·성실 납세 유도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세정 홍보 및 성실 납세 유도 등을 위해 '2016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하여 배포에 나섰다.

대상은 지방세 표준시스템을 활용하여 올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2,000명을 무작위 전산 추첨해 선정했다.

탁상달력에는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 기한과 테마별 지방세 안내, 기타 납세자에게 유용한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세정 홍보용 탁상달력은 2012년부터 매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납세자 이해와 활용도가 높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주선웅기자

서천군 서래야 쌀 은평구 학교급식 최종납품선정

서천군은 최근 서울시 은평구에서 열린 학교급식 친환경쌀 최종 품평회에서 '서래야 무농약 쌀'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부모, 영양교사, 급식관계자 등 200명으로 구성된 은평구 학교급식 평가위원들은 지난 7일 최종 평가회를 열어 지난 9월부터 서류 및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최종 본선에 오른 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품질 및 시식평가를 거친 최종납품선정 결과 서래야 무농약 쌀이 선정되었다.

앞으로 서천군 서래야 무농약쌀은 2016년 3월부터 2년간 은평구 학교급식으로 연간 150여톤을 공급하게 되며 총 공급물량은 30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서울시 학교급식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이재선 농림과장은 "이번 은평구 학교급식 납품을 통해 서래야쌀의 우수성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서래야쌀이 학교급식의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 학교급식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노원구, 관악구, 서울시학교급식센터,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 학교에 서래야쌀을 납품해 오고 있는 서천군은 친환경 생산단지의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학생 및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농사체험 활동을 실시해 수도권 학교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서천=김태선기자

동 정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

구본영 천안시장=11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5천안농업대학 졸업식에 참석하고 오후 6시 30분 아이비웨딩에서 열리는 천안시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

한마음대회

황명선 논산시장=11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75차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오후 2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참석.

독립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 보고회

최홍묵 계룡시장=11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독립운동기념사업 기본계획 보고회 참석.

합동연말모임

노박래 서천군수=11일 오전 11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귀농귀촌인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하고 오후 7시 30분 서울에서 열리는 서공회·서경회·서천군 합동연말모임에 참석..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이용우 부여군수=11일 오전11시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

계룡시 '생명사랑 체험관' 운영 호응

계룡시 보건소(소장 윤석영)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 생명사랑 체험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찾아가는 생명사랑 체험관은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을 살자로' 라는 슬로건 아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관은 지난달 25일 계룡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자살관련 OX퀴즈, 사랑의 말 카드 작성하여 나무트리 만들기 등 주입식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체험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생들은 "획일적이고 딱딱한 자살예방을 주입식으로 강조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체험식으로 진행돼 좋았으며, 외롭고 지칠 때 힘이 되고 힘을 주는 친구와 가족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생명사랑 체험관은 오는 22일 금암중학교, 29일 용남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한다.

계룡=주선웅기자

동 정

금요간부회의

오시덕 공주시장= 11일 오전 8시 4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금요간부회의에 참석, 오전 10시 공주한옥마을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석, 오후 4시 공산성에서 진행되는 공산성 성안마을 제8차 발굴 최종보고회 참석.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김동일 보령시장 = 11일 오전 9시 30분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미소·친절·청결 아카데미 시민강사 교육,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8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오전 10시 30분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오후 2시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수료식.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완섭 서산시장= 11일 오전 10시 제20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상징물위원회 참석.

대한민국산림환경대상 시상식

박동철 금산군수= 11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호텔서 열리는 제11회 대한민국산림환경대상 시상식 참석.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1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의회에서 열리는 제283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도순 보령교육장= 11일 오전10시 30분 도예결산위원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2016년도 당초예산 5522억원 확정

공주시, 일반회계 4800억원 · 특별회계 722억원으로 전년比 0.2% 증가

공주시(시장 오시덕)의 2016년도 당초예산이 5,522억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10일, 2016년도 당초예산이 올해보다 11억원 증가한 5,522억원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은 내년도 국내 경기의 침체가 계속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 세입반영으로 재정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00억원으로 전년대비 1.5%(70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가 722억원으로 전년대비 7.5%(59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364원(28%) △농업분야가 607억원(13%) △문화·관광분야가 537억원(11%) △지역개발분야가 317억원(8%) △산업·교통분야가 289억원(6%) 그리고 △환경보호분야가 289억원(6%)순이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6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56억원,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55억원, 탄천산단 복합주거시설 건립 40억원,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보급 33억원, 고도지정지구 정비 29억원, 어게인유구만들기 12억원 등이 확정됐다.

특히,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예산으로 원도심재생 활성화사업 69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1억원, 웅진백제 4대왕 숭모관 건립 29억원, 공산성주변 주차장 확충 62억원, 소득특화작물 집중발굴 24억원, 경로당중심 어르신 서비스확대 사업 12억원 등이 반영됐다.

황교수 기획담당관은 "2016년 당초예산은 빈약한 세수여건의 어려움속에서도 저소득층 보호, 일자리 창출, 기업 경제활성화 등 에 우선 재원배분하였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후속사업등 공주시 미래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향상에 중점 배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2016년 어린이안전강화 CCTV설치 확정

서산시, 읍 · 면 취약지역에 지속적 설치 시민 생활안전 강화

서산시가 내년도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한 CCTV설치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교 주변 교통사고, 유괴, 납치 등 어린이대상 범죄 예방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의 치안유지를 위해 내년에 초등학교 ·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와 도시공원 21개소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2008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 유치원 29개소, 공원 46개소에 총161대의 CCTV를 연차적으로 설치,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에는 새로운 시가지가 조성돼 지역주민의 유입이 예정되는 대산, 성연지구 등을 위주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CCTV 통합관제를 위해 추진하는 U-통합안전센터가 구축되면 어린이들의 등 · 하굣길 집중 관제를 실시해 현재보다 개선된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은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학교폭력 및 어린이대상 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읍면 주요도로, 마을안길 등 읍면지역 농산물 절도예방 및 방범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한기자

금산군-한국환경공단 MOU 체결

군민중심 환경서비스 교두보 마련

금산군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서진)과 환경기술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이번 체결을 통해서 금산군의 대기 · 수질 · 폐기물 · 자원순환 · 기후변화 등 환경 전 분야의 질 높은 환경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환경복지를 만들고자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인프라 구축 및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술 및 행정분야의 전문성 활용, 군민 중심의 환경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

금산=김남규 기자

제10회 은빛축제한마당 성료

보령시 세대 간 화합의 장 마련

보령시는 10일 오후 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경필)에서 제10회 은빛축제 한마당을 성료했다.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김동일 시장을 비롯해 지역 어르신과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1년 동안 어르신들이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익힌 솜씨를 가족과 지역주민들에게 뽐내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1부 연극공연과 2부 기념식 및 종합발표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운영된 자체 연극반에서 뮤지컬 춘향전 연극 공연을 열었고, 오찬 후 기념식에 앞서 어르신 사물놀이패 공연과 대한어린이집 원생들의 노래 축하공연이 진행됐고, 기념식 이후에는 지난 10월에 열었던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구입한 이불 전달식을 가졌다.

이후 1시 30분부터는 가요, 한국무용, 동화 구연, 실버에어로빅 등 14개 프로그램에 대한 공연 행사로 어르신들이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으며, 서예, 수묵화, 미술 작품의 작품전시행사도 행사 기간 내 전시실에서 열렸다.

올해 10회째인 은빛 축제 한마당은 나날이 늘어가는 노인세대에게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배우는 기쁨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격려하며 즐거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왔다.

김동일 시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문화 조성과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된 은빛 축제한마당이 벌써 10회째를 맞았다"며,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고 세대간 화합을 통해 삶의 활력이 넘치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보령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열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연 및 위촉직 협의위원과 각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군 지휘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통합방위태세 강평, 군경 위문 및 예비군 육성 지원 결과보고, 유관기관 협조사항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2015 예비군 정기 감사 유공자 13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와 97-2대대 동원 · 예비군 부대 감사 결과 강평, 올해 통합방위 성과 분석과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내년도 운영방안을 토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공조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동일 시장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등 국내외 정세는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며 총력 안보태세를 모으는데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금산군 공공도서관(기적의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필요성과 즐거움을 알게 하고자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동화를 읽고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동화 나와라 뚝딱!', '동화는 내 친구'와 퍼즐로 세계지도를 만들면서 세계의 역사와 지리 · 문화를 익히는 '퍼즐로 완성하는 세계지도' 등이 있다.

이밖에도 중국어를 익힐 수 있는 '니하오 중국어 나라', '하하 중국어 여행'과 생활 속의 과학의 원리를 레고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호기심 팡팡 과학 레고', '생각 씽씽 과학 레고' 등이 있다.

금산의 어린이들이 기적의도서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언어, 과학, 예술 등 관심분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2016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운영하며, 2015년 12월 19일 9시부터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기적의도서관 (041-750-4482~5)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산=김남규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today.com

공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진대회 성료

13개 주민자치센터 17개 팀 참여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재능 발휘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공주 문예회관에서 '2015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600여명이 참여했으며, 관내 14개 읍 · 면 ·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중 16개 팀이 참여, 그동안 갈고 닦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올해 경연대회에서는 입춤, 댄스, 건강 체조, 풍물, 한국무용 등 각 주민자치센터별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서로 경쟁하며 배우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아울러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에게는 성취감과 자부심을, 일반 시민에게는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향유, 정보공유의 시간이 된 것은 물론 다른 팀들의 공연을 힘찬 박수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대회의 영예의 대상에는 웅진동의 입춤(성주풀이)팀이 차지했으며, 신관동의 다이어트 댄스팀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주시 시정담당관실 시정팀 정태란 담당은 "이번 경연대회는 경쟁의식보다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잔치가 돼 좋았다"며,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수강생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알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 기자

우/리/동/네

2015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고대회

보령시 우수기관상 수상

보령시가 지난 9일 태안 리솜 오션캐슬에서 충청남도 주관으로 개최된 '2015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고대회에서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수상과 암 예방관리 공무원 부문 도지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고대회는 올해 도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표창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내년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시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산 · 주산 경로당 사업 등 99개소 대상으로 만성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과 '신비의 영약을 찾아서' 마당극 공연 등을 개최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알리고 시민의 실천의지를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암 예방 유공 공무원 부문에서는 재가 암환자와 의료비 관리, 국가 암검진 홍보와 조기 수검률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보건소 이윤행 주무관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만성질환은 개인의 건강관리나 보건의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더 많은 분야가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서산시 문화도시로 선정

내년부터 추진, 2020년까지 37억5천만원 투입

서산시가 2016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적 삶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사회 환경을 갖춘 도시 육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충남에서는 천안시에 이어 두 번째로 서산시가 선정돼 2020년까지 사업을 펼친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7억5천만원(국비 15억원, 도비 6억7천5백만원, 시비 15억7천5백만원)을 들여 '문화예술 발전도시 해 뜨는 서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뜰레랑스 프로그램', '공연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 '방학중 어린이 예술학교'와 지역의 청년 · 예술인들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하는 '청년문화아카데미'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인 '생활형 공연창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단체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협의체와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그룹 등을 구성원으로 문화도시 추진단을 내년 2월에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산시가 문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풍부한 문화자원과 높은 잠재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MBC 220-2348~9▶TJB 281-1101▶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6:00 2TV아침	6:00 뉴스투데이	6	6:00 모닝와이드	6:00 정보의 발견 Foryou 6:30 CMB 라이프 6:50 충청남도 영상소식	6:10 명의 7:00 출동! 슈퍼윙스 7:30 명탐정 피트
7:50 인간극장	8:00 KBS아침뉴스타임	7:50 내일도 승리	7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로우 바리스타	8:00 놀이터 구조대, 뽀잉 8:30 곰디와 친구들
8:25 아침마당	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9:40 시간을 달리는 TV	8:30 생방송 오늘아침	8	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8:00 CMB뉴스와이드 8:30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다큐 1부	9:00 크레멍의 랄랄라여행 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9:30 KBS 뉴스 (수화방송)		9:30 MBC생활뉴스 9:45 기분좋은 날	9	9:10 좋은아침	9:00 2015프로배구 KGC인삼공사vs 흥국생명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오늘
10:00 특별생방송 희망창조 코리아 웃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10:40 지구촌 뉴스	11:00 MBC 파워매거진	10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0:00 다큐희망 10:30 아빠는 요리사	11:20 하나뿐인 지구 12:00 EBS정오뉴스
12:00 KBS 뉴스 12	11:00 다 잘될거야	12:00 MBC정오뉴스 12:20 엄마	11	11:10 청담동 스캔들 11:50 SBS 12뉴스	12:00 굿뉴스 12:30 해피쿡 맛있는 대화	12:10 문화재 인사이드 12:2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13:40 한국사 시간여행
1:00 희망창조 코리아 웃어라 대한민국 소상공인	12:50 인간극장 스페셜	2:20 최고의 연인	12	12:45 리멤버-아들의 전쟁	1:00 WTA특집 SEM STORY	14:00 머털 도사 14:30 헬로 코코몽
2: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2:00 KBS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		1	2:00 애인있어요	2:00 악기의 탄생	14:50 빠삐에 친구 15:00 드래곤 길들이기
3:00 열린채널 3:30 행복한 지도	3:05 후토스-잃어버린 숲 3:30 영상앨범 산	3:00 MBC뉴스 3:10 키즈CSI 과학수사대 3:40 드림주니어	2	3:00 3시, 뉴스브리핑	3:00 굿뉴스 3:30 메디컬 인	15:25 반짝반짝 발명 클럽 15:40 반짝반짝 나의 우주
4:00 오늘의 경제 4:1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4:00 두리둥실 뭉게공항 4:30 누가누가 잘하나	4:25 아름다운 당신	3	4:00 고향이 보인다 4:30 접속! 애니월드 1부	4:00 섹션뉴스 4:30 버스킹	15:50 크레멍의 랄랄라여행 16:30 코코몽 3
5:00 KBS 뉴스5 (수화방송) 5:20 시사진단	5:30 터닝메카드	5:00 MBC이브닝 뉴스	4	5:00 접속! 애니월드-애니갤러리 2부 5:30 SBS뉴스퍼레이드	5:00 김정선의 파워노래교실 6:00 CMB 뉴스와이드 6:30 해피쿡 맛있는 대화	17:00 타요의 씽씽극장 17:10 미사와 곰 17: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6:00 로보텍스 6:30 뮤직뱅크	6:10 생방송 오늘 저녁	5	6:05 해피투데이	7:00 섹션뉴스 7:30 CMB컵 유소년 축구대회 기록다큐 2부	18:00 톡! 톡! 보니하니 1 18:05 명탐정 피트2 18:20 톡! 톡! 보니하니 5
7:00 KBS뉴스 7:30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7:50 다 잘될거야	7:15 최고의 연인 7:55 MBC뉴스데스크	6	7:20 돌아온 황금복 8:00 SBS 8 뉴스	8:00 악기의 탄생	18:45 역사가 술술 18:55 톡! 톡! 보니하니 4 19:0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8:25 우리 집 꿀단지	8:30 VJ 특공대	8:55 아름다운 당신	7	8:50 궁금한 이야기 Y	9:00 CMB 뉴스와이드 9:30 좌충우돌 블링블링	19:30 EBS 뉴스 19:50 장수의 비밀
9:00 KBS 뉴스 9	9:30 나를 돌아봐	9:30 능력자들	8	10:00 정글의법칙	10:00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 고학년부 4강전	20: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하나뿐인 지구
10:00 명견만리 10:55 숨터	10:50 TOP 밴드 3	11:15 나 혼자 산다	9	11:25 백종원의 3대 천왕	11:00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 저학년부 4강전	21:30 한국기행 21:50 명의 22:45 고전영화극장 <티파니에서 아침을>
11:00 KBS 뉴스라인 11:40 생방송 심야토론			10			
			11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뉴스광장	6:00 숨터 6:20 다큐공감 7:10 생생정보 스페셜	6:00 MBC 뉴스투데이	6	6:00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6:00 정보의 발견 Foryou 6:30 CMB 라이프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로우 바리스타	6:00 희망풍경 6:30 남북10대들의 통일 프로젝트 딱 좋은 친구들
7:50 남북의 창	8:20 특파원 현장보고	7:30 MBC 월드리포트	7	7:40 SBS 뉴스토리	8:00 2015프로배구 삼성화재 vs 대한항공	7:00 코코몽 3
8:30 시니어토크쇼 황금연못	9:00 나를 돌아봐 스페셜	8:00 경제매거진 M	8	8:30 창사25주년 특별기획 바람의 학교	10:00 CMB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	7: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8:00 레이디 버그
9:30 KBS뉴스 9:4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주년 특집		8:5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9	9:40 자기야-백년손님	11:00 CMB컵 유소년 축구대회 기록다큐 2부 11:30 해피쿡 맛있는 대화	8:30 모여라 딩동댕 9:00 두다다쿵 9:30 봉구야 말해줘
10:30 행복한 지도	10:20 영화가 좋다	9:50 위대한 유산 스페셜	10	10:55 접속! 무비월드	12:00 섹션뉴스 12:30 아빠는 요리사	9:40 봉구야 말해줘 9:50 마사와 곰 10:10 곰디와 친구들
11:00 사랑의 가족 11:55 숨터	11:30 우리동네 예체능 스페셜	11:00 찾아라! 맛있는 TV	11	12:00 SBS뉴스 12:10 육룡이 나르샤	1:00 메디컬 인 1:30 보들라디오	10:40 지파이터스 11:10 청춘! 세계도전기
12:00 KBS뉴스 12:10 국악한마당	12:40 개그콘서트	12:00 MBC뉴스 12:10 무한도전 스페셜	12	2:25 런닝맨	2:00 열전 동네방네 3:00 WTA특집 SEM STORY	12:00 최고의 요리비결 12:30 최고의 요리비결 13:00 최고의 요리비결
1:00 동물의 왕국 1:50 아생일기	2:15 오 마이 비너스	1:35 달콤살벌 패밀리	1	3:25 SBS뉴스 3:35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5	4:00 버스킹 4:30 CMB컵 유소년 축구대회 기록다큐 2부	13:30 최고의 요리비결 14:00 최고의 요리비결 14:30 나눔 7080
2:00 헬로 카봇2 2:15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2:30 두리 뭉실 뭉게공항 3 2:45 갤럭시 키즈	4:20 슈퍼맨이 돌아왔다	3:40 MBC 뉴스 3:50 쇼! 음악중심	2	4:50 토요일이 좋다-오! 마이 베이비/ 주먹쥐고 소림사	5:00 김정선의 파워노래교실 6:00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창업다큐 1회 6:30 보들라디오	15:00 다큐오늘 15:05 한국기행 16:45 세계의 눈 17:35 한 컷의 과학 시즌2
3:00 영상앨범 산 3:10 한국인의 밥상	6:05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5:00 우리결혼했어요	3		7:00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 고학년부 4강전	17:45 장학퀴즈 18:35 글로벌 아빠 찾아심만리
4:25 KBS 뉴스 4:35 한국다움! 문화대한민국	7:55 부탁해요, 엄마	6:25 무한도전	4		8:00 CMB컵 유소년 축구리그 저학년부 4강전	19:2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0:15 다문화 고부열전
5:25 나눔의 행복, 기부 5:40 2015 희망로드 대장정	9:15 연예가 중계	7:55 MBC뉴스데스크	5		9:00 섹션뉴스 9:30 다큐희망	21: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1: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7:00 KBS뉴스 7:10 다큐 공감	10:35 사람과 사람들	8:45 엄마	6		10:00 대한민국, 선비를 불러내다 1부	22: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2:35 글로벌 가족 정착기-한국에 산다
8:00 오늘, 미래를 만나다	11:35 장사의 신-객주 2015	10:00 내딸, 금사월	7	8:00 SBS 8뉴스	11:00 대한민국, 선비를 불러내다 2부	23:05 세계의 명화 <메멘토>
9:00 KBS 뉴스 9 9:4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11: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8	8: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9:00 섹션뉴스 9:30 다큐희망	
10:50 프링스판 국산으로만 살아보기			9	10:00 애인있어요	10:00 대한민국, 선비를 불러내다 1부	
11:40 콘서트 7080			10	11:10 그것이 알고싶다	11:00 대한민국, 선비를 불러내다 2부	
			11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뉴스 6:10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7:05 TV 회고록 울림	6:00 생생 정보스페셜	6:20 시간여행 그땐 그랬지	6	6:00 SBS 뉴스 6:10 생활의 달인 스페셜 7:2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6:00 정보의 발견 Foryou 6:30 CMB 라이프 7:00 은혜로운 말씀 7:30 문학의 향기	6: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6:30 장수의 비밀
8:00 KBS 뉴스 8:10 일요진단	7:05 KBS재난 방송센터 7:15 영상앨범 산 7:45 연예가 중계	7:00 MBC뉴스 7: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7			7:00 꼬마버스 타요
9:00 사람과 사람들 9:55 이웃집 찰스	9:00 1박2일	8:00 해피타임!	8	8:20 잘먹고 잘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8:00 CMB 프로배구 KGC인삼공사 vs 흥국생명	7:30 캐니멀 8:0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0:55 TV쇼 진품명품	10:30 출발 드림팀 시즌2	9:15 복면가왕 스페셜	9	9:30 TV 동물농장	10:00 반려동물 프로젝트 동생	8:30 모여라 딩동댕
11:55 숨터	11:40 해피투게더 스페셜	10:45 신비한TV서프라이즈	10	10:50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11:00 메디컬 인 11:30 아빠는 요리사	9:00 로보카 폴리 9:30 타요의 씽씽극장
12:00 KBS 뉴스 12:10 전국노래자랑	1: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12:00 MBC뉴스 12:10 출발 비디오 여행	11	12:00 SBS 뉴스 12:10 정글의 법칙	12:00 섹션뉴스 12:30 해피쿡 맛있는 대화	9:40 명탐정 피트
1:20 스카우트 2	2:25 부탁해요, 엄마	1:15 화려한 유혹	12	1:10 리멤버-아들의 전쟁	1:00 CMB컵 유소년 축구대회 기록다큐 2부 1:30 좌충우돌 블링블링	9:50 갤럭시 프로젝트 10:2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2:10 2015-2016 프로배구		3:35 MBC 뉴스 3:45 섹션TV연예통신	1	2:20 SBS 인기가요	2:00 김정선의 파워노래교실	10:50 장학퀴즈
4:10 걸어서 세계속으로		4:50 일밤<복면가왕 / 진짜사나이>	2	3:35 SBS 뉴스 3:45 정글의 법칙	3:00 CMB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	11:4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2:30 극한직업
5:00 KBS 뉴스 5:10 미디어 인사이드 5:40 열린음악회	4:50 해피선데이		3	4:50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5	4:00 대한민국, 선비를 불러내다 1부	13:20 명의
7:00 KBS뉴스 7:10 도전 골든벨	7:55 부탁해요, 엄마	7:55 MBC뉴스데스트	4		5:00 대한민국, 선비를 불러내다 2부	14:15 일요시네마 <몬테크리스토 백작>
8:00 궁금한 일요일 장영실쇼	9:15 개그콘서트	8:45 엄마	5		6:00 해피쿡 맛있는 대화 6:30 아빠는 요리사	16:30 아옹멍멍 귀여워
9:00 KBS 뉴스 9 9:40 역사저널 그날	10:55 다큐멘터리 3일	10:00 내딸, 금사월	6		7:00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창업다큐 1회 7:30 로우 바리스타	16:45 세계의 눈 17:35 세계테마기행
10:30 취재파일 K	11:50 영화가 좋다	11:15 시사매거진 2580	7	8:00 SBS 8 뉴스	8:00 김정선의 파워노래교실	18:15 세계테마기행
11:10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			8	8: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9:00 섹션뉴스 9:30 파워인터뷰	18:55 세계테마기행 19:35 세계테마기행
			9		10:00 문학의 향기 10:30 CMB컵 유소년 축구대회 기록다큐 2부	20:15 EBS 다큐프라임
			10	10:00 애인있어요	11:00 반려동물 프로젝트 동행	21:10 EBS 다큐프라임 22:05 EBS 다큐프라임
			11	11:10 창사25주년 특별기획 바람의 학교		23:00 한국영화특선 <겨울 나그네>

TV 하이라이트

▲내일도 승리 (MBC 오전7시50분)

집에서 쉬고 있던 재경(유호린)은 영선(이보희)에게서 승리(전소민)이 개발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한편, 태성(전인택)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타간장 업체 담당자를 만났던 승리는 회사 기밀을 보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어머님은 내며느리 (SBS 오전 8시30분)

현주는 고민 끝에 경민을 찾아가 미국에 가서 함께 법인 설립을 하자는 경민의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미국으로 떠나려 한다. 경민은 현주의 발언에 충격을 받고, 현주를 끝내 설득하지 못한다. 한편, 성태는 '인간의 굴레' 책에 끼워져있는 편지 한 장을 발견하는데..

▲부탁해요, 엄마 (12일, KBS2 오후 7시55분)

훈재가 이복 남매라는 것을 알게 된 채리는 의도치 않게 기남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만다. 산옥과 결혼 준비로 다투게 된 진애는 우연히 산옥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몰랐던 가슴 아픈 비밀을 알게 되는데…

케이블 명화

▲ 군도:민란의 시대 (11일 OCN 오후 5시40분)

군도, 백성을 구하라!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3년. 힘 없는 백성의 편이 되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적떼인 군도(群盜), 지리산 추설이 있었다.

쌍칼 도치 vs 백성의 적 조윤

잦은 자연재해, 기근과 관의 횡포까지 겹쳐 백성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 져 가는 사이, 나주 대부호의 서자로 조선 최고의 무관 출신인 조윤은 극악한 수법으로 양민들을 수탈, 삼남지방 최고의 대부호로 성장한다. 한편 소, 돼지를 잡아 근근이 살아가던 천한 백정 돌무치는 죽어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한 뒤 군도에 합류. 지리산 추설의 신 거성(新 巨星) 도치로 거듭난다.

뭉치면 백성, 흩어지면 도적! 망할 세상을 뒤집기 위해, 백성이 주인인 새 세상을 향해 도치를 필두로 한 군도는 백성의 적, 조윤과 한판 승부를 시작하는데...

▲어바웃타임 (10일 채널CGV오후 10시00분)

모태솔로 팀(돔놀 글리슨)은 성인이 된 날, 아버지(빌 나이)로부터 놀랄만한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된다.

바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비록 히틀러를 죽이거나 여신과 뜨거운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여자친구는 만들어 줄 순 있으리.. 꿈을 위해 런던으로 간 팀은 우연히 만난 사랑스러운 여인 메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팀.

어설픈 대시, 어색한 웃음은 리와인드! 뜨거웠던 밤은 더욱 뜨겁게 리플레이!

꿈에 그리던 그녀와 매일매일 최고의 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와 그녀의 사랑이 완벽해질수록 팀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순간을 다시 살게 된다면, 과연 완벽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신인가수 자매듀오 와블 '응답하라 1988' OST 참여

강수지 '보라빛 향기' 리메이크

'응답하라 1988' OST 메들리로 인터넷과 SNS상에서 영상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신인가수 와블(이기림, 이푸름)이 강수지의 '보라빛 향기'로 '응답하라 1988' OST Part6에 참여했다.

지난 8일 엠넷닷컴을 통해 '응답하라 1988' OST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던 '자매 보컬 듀오' 와블이 '보라빛 향기'로 '응답하라 1988' OST 대열에 합류한 것.

'보라빛 향기'는 1990년 '원조 여신' 강수지의 데뷔곡으로, 당시 소녀같은 목소리에 아기자기한 가사가 돋보여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다. 2015년형 풋풋한 소녀감성이 가득 담긴 와블의 '보라빛 향기'는 오는 12일 0시 모든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신(新) '보라빛 향기' 발매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오늘(10일) 정오 공개된 티저 영상 또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응답하라 1988' 속 등장인물들의 TV시청 장면에서 강수지가 아닌 1988년도 스타일링을 입은 와블이 '보라빛 향기'를 부르고 있기 때문. 드라마 장면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티저영상에 많은 네티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OST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학콘서트 '통일빵집에서 만나요!' 열기 후끈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 행복한 동행(센터장 김윤태)의 가족문학 콘서트인 "통일빵집에서 만나요"의 연극과 기타연주, 그리고 가수의 노래를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문화예술을 온 국민과 더불어 누리고자 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으로 크리에이티브 예인'의 공연이었다.

문학과 예술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행복한 동행의 가족들은 바로 눈 앞에서 연극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즐거워했다. 또한 연극의 내용이 탈북한 청년이 빵집에서 일하면서 북에 두고 온 동생을 기다리며 열심히 사는 모습이어서 모두들 공감하고, 박수를 보냈다.

연극공연 후 기타연주와 노래를 불렀고, 함께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공연 후 인터뷰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한 가족 한분은 "그 누구도 탈북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마음을 모른다"며 "대한민국에서 더욱 열심히 정착하여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이라고 했다.

행복한 동행 김윤태 센터장은 "공연단 여러분께 좋은 문학예술을 접하게 해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동행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13회 충남도지사기 배구대회 개최

제13회 충남도지사기 배구대회가 오는 12일부터 2일간 청양군민체육관을 비롯해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충청남도생활체육회(회장 안희정)가 주최하고 충남 및 청양군배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남자일반부 23팀, 여자부 6팀, 시니어부 11팀, 교육행정부 10팀 등 50팀 7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렉서스 지정정비업체 혼다 지정정비업체 푸조 지정정비업체 재규어 지정정비업체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26
Tel. 042-528-1800 / Fax. 042-528-1833
Mobile. 011-429-8377 / e-mail. kyungho0710@nate.com
대표이사 안 경 호
www.sw-motors.com

레저용품 전문점
MSL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사이클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모터보트 전문점 · 골프용품
專務理事 최 재 종

목원대 다문화센터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 개최 목원대학교 다문화사회통합연구교육센터는 10일 오후 2시 사범관408호에서 한국이민재단,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와 '2015 대전.충청권역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공동개최했다.

한국영상대 '아트플라자' 준공식 지난 9일 학생 휴게 공간인 '아트플라자(Arts Plaza)'의 준공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유재원 총장을비롯한 교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테이프커팅식, 기념사, 장학증서 수여, 기념식순으로 진행됐다.

정산면 남녀 새마을지도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 청양군 정산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동근, 추명숙)은지난 9일 관내 가구 중 형편이어렵거나 고령으로 직접 집수리를할 수없는 가구를 선정해사랑의집 고쳐주기봉사를실시했다.

㈜화성스틸 아사모, 대덕구 저소득 아동에 성금 지원 스테인레스 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화성스틸의 사내 모임 아사모(아이들을 사랑하는 직원 모임)에서는 매월 모금한 성금 150만원을 대덕구 저소득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에 기탁했다.

적십자사, 연말 고령이산가족 위로 방문 대한적십자사 대전 · 세종 · 충남지사(회장 민경용)는 연말맞이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 미상봉자 및 가족을 만나지 못한 고령의 이산가족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위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LX공사,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김기승 LX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오른쪽)과 노병국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왼쪽)은 10일 철도공단 5층 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철도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AIST 장래혁 교수, 국내 네 번째선정… 저전력 컴퓨팅 시스템의 공헌

국제컴퓨터학회(ACM) 석학회원 선정

KAIST(총장 강성모) 전기및전자공학부 장래혁(사진) 교수가 최고 권위의 국제컴퓨터학회(ACM: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에서 2015년도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네 번째로 국제컴퓨터학회의 석학회원으로 선정된 장래혁 교수는 저전력 컴퓨팅 시스템의 공헌과 국제 컴퓨터학회에서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장래혁 교수는 지난 2012년에 국제전기전자학회(IEEE) 석학회원으로도 선정됐다. ACM, IEEE 두 기관에서 동시 석학회원으로 선정된 인물은 국내에 세 명뿐으로, KAIST는 강성모 총장, 전산학부 황규영 교수, 장래혁 교수까지 세 명을 한 학교에서 모두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컴퓨터학회는 1947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컴퓨터 분야의 학술 조직으로 미국 뉴욕시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 약 10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석학회원은 컴퓨팅과 정보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1% 미만의 석학급 회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자격이며, 매년 4~50명 정도의 석학회원만을 선발한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ACM과 IEEE 두 기관의 석학회원이 되는 것을 최고영예로 여기며 특히 장래혁 교수는 국내 최초로 40대 ACM, IEEE 동시 석학회원이 됐다.

장 교수는 2012년부터 ACM의 설계자동화분과(SIGDA: Special Interest Group on Design Automation)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ACM 트랜잭션 설계자동화 저널의 편집장(Editor-in-Chief)을 맡고있다.

또한 아시아 인물로는 최초로 반도체설계자동화학술대회(DAC : Design Automation Conference)의 프로그램위원장(Technical Program Chair)에 선임됐다.

장 교수는 "학위과정을 모두 국내에서 수학한 토종박사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적은수의 ACM 회원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컴퓨터 관련 학계와 산업계 인력들이 ACM 회원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권율정 대전현충원장

보훈복지문화대학에서 나라사랑 특강

권율정 국립대전현충원장은 지난 9일 오전 대전상이군경회 복지회관에서 열린 제4기 보훈복지문화대학에서 보훈복지문화대학 학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숭고한 보훈정신을 주제로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미래로 나아갈 우리의 자세 등에 대해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권율정 원장은 이날 특강을 통해 "보훈의 성지이자 민족의 성역인 대전현충원은 특정 지역을 넘어 전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호국교육의 도장으로 국민들에게는 숭고한 보훈정신을 함양하는 '열린 현충원, 밝은 현충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온누리 공주시민도 성금모금 동참

쿠폰 및 마일리지 기부 이벤트 통해 167만 220원 기부

연말연시를 맞아 추운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의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모금 행렬에 공주시의 온누리공주시민들도 동참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에 따르면, 희망 2016 희망 나눔 캠페인 집중 성금모금행사가 열린 지난 9일 온누리공주시민을 대표로 변종례 운영위원이 공주시를 찾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67만 220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 받은 성금은 공주시가 지난달 9일부터 온누리공주 홈페이지에서 쿠폰 및 마일리지 기부하기 이벤트를 진행, 315명의 온누리공주시민들이 소중한 정성을 모은 것.

특히 올해에는 온누리공주 마일리지 외에 쿠폰도 함께 기부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 지난해보다 100만원 이상 많은 성금을 모금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한 온누리공주시민은 "추운 겨울 어렵게 살고 있는 공주시민들을 위해 기꺼이 성금모금행사에 동참하게 됐다"며, "온누리공주시민들의 작은 정성이 함께 나누는 사회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공주 쿠폰과 마일리지는 온 ·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따라 홈페이지에 적립되고 공주시 고맛나루장터 농 · 특산물 구입, 팸투어 참여 등에 다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토우회, 지역 복지 향상 위해 실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추진

아산시 「토우회」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8일과 9일까지 이틀에 걸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산시 토우회는 아산시청 및 읍 · 면 · 동 · 사업소에 재직 중인 토목직 공무원 100여명으로 결성된 모임이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회원들은 연탄 구입 및 배송 비용 등을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해 독거노인, 장애인 · 환자가정 등 어려운이웃 10세대에 총 4,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토우회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에 직접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어 보람차며,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 하천정비,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 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로서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있는 토우회의 연탄지원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아산시 공직사회에 훈훈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사랑으로 하나되는 밤' 행사 가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송년의 밤행사 성료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오민석)은 지난 9일, 대학원 2층 컨벤션홀에서 환자들을 위한 송년행사인 '사랑으로 하나되는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환자 및 보호자, 교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 진료교수들의 합창, 오케스트라 공연,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지휘자 김석구와 대전의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오푸스앙상블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환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민석 병원장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2016년을 기원한다" 고 밝혔다.

한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은 환자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교직원의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매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오고있다.

송병배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동정

연석회의

한재득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장 = 11일 오전 11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중앙회 이사 및 시도새마을회장 연석회의에 참석.

충청남도 독서경진대회

김진수 새마을문고 충청남도지부 회장 = 11일 오전 11시 서산시새마을회관에서 충청남도 독서경진대회를 개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선문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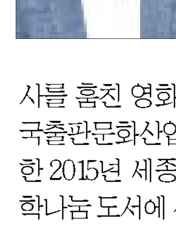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우)는 10일 센터 IR룸에서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와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창업과 지역 중소 ·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내용은 ▲ 글로벌 마케팅 산학협력 국제화 선도모델 공동 창출 ▲ 대학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등의 양 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의 교류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교육, 포럼,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 지역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탐방 및 현장실습연계 협력 등 기타 목적과 관련한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공동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연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 및 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내포=이지웅기자

건양대 김형곤 교수저서 세종 우수교양도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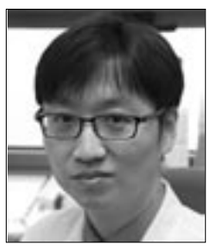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 교양학부 김형곤(사진) 교수가 쓴 '미국의 역사를 훔친 영화의 인문학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나눔 도서에 선정됐다.

세종도서 선정은 최근 1년간 발행된 신간도서 중 작은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병영도서관 등에 보급할 도서를 선정 지원해서 출판 및 국민 독서문화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세종도서로 선정된 '미국의 역사를 훔친 영화의 인문학'은 미국역사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 7편을 골라 미국에 대해 설명한 책으로 영화라는 소재를 이용해 미국역사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있다. 이 책에 앞서 출간한 '신대륙의 역사를 훔친 영화의 인문학' 역시 이 책을 읽고 즐기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이정복기자

건강 칼럼

'짜릿'한 겨울 스포츠 잘못 타면 온몸이 '찌릿'



양대석
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바야흐로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 · 스노보드 시즌이 돌아왔다. 일년을 기다려온 마니아뿐만 아니라 스키를 처음 타보는 초보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즐거운 발걸음으로 스키장을 향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만큼 안 따라주는 몸으로 여러 차례 넘어지길 반복, 돌아오는 길에는 온몸이 쑤시고 뻐근하기 마련이다. 남들은 잘 타는 스키가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 스키를 즐기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할 것이 있다. 스키장갈 때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무릎과 엄지손가락 가장 많이 다쳐

스키는 체력이 필요한 스포츠다.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내려오면서 근력과 관계된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고 활강을 중간에 멈추기 어려우므로 근지구력과 관계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된다. 또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민첩성과 순발력도 상당히 필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여 스키를 탈 수 있는 신체를 만들어야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

별다른 보호 장구 없이 급경사를 빠르게 하강하는 스키의 특성상, 한번 부상을 당하면 1개월에서 수개월까지 긴 치료기간이 필요한 중상인 경우가 많다. 하체는 고정된 채 상체만 돌아간 상태로 넘어져 대개 무릎 관절의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되는데, 부상 부위는 다리(72%)가 가장 많고 팔(20%), 머리(3.1%) 순으로 나타난다. 전체 스키 손상 중 30% 정도를 차지할 만큼 가장 흔한 무릎 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부상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으나 후에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엄지손가락 부상도 '스키어의 엄지손가락(Skier's Thumb)'이라는 병명으로 불릴 만큼 흔하다. 대개 넘어지는 순간 스키폴의 끈(Strap)이 엄지손가락에 휘말리면서 발생한다. 이럴 경우 단순히 손가락이 삐었다고 지나치기 쉬운데 인대 손상이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야 한다. 스노보드는 폴대 대신 손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어깨 관절의 탈구나 팔 골절이 흔히 발생한다. 또한 양쪽 다리를 보드에 붙이고 왼쪽 다리를 내밀고 타는 특성 때문에 왼쪽 다리 부상이 오른쪽보다 두 배 정도 많다.

잘 넘어지는 게 안 다치는 법

스키나 스노보드 부상의 대부분은 넘어질 때 생기므로 초보자는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질 때 스키폴은 엄지손가락 손상을 일으키거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과감히 버리고 손을 스키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다리를 모아 가로 방향으로 넘어진다. 스키폴의 끈을 손목에 걸면 잘 빠지지 않으므로 평상시 끈을 풀고 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넘어져 정지하지 않았는데 무리해서 일어나는 것은 추가 부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주변을 확인한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스노보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앉는 자세를 취하면서 서서히 주저앉도록 한다. 넘어진 후에는 다른 스키어와의 충돌에 의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핀다. 동료가 부상을 당해서 머리 및 척추 손상이 의심스러울 경우 절대 안정이 필수적이며 전문 구급요원의 응급처치 시까지는 환자의 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인대부상 및 사지부위의 골절 등에는 부목을 대고 부목이 없을 때에는 스키나 폴 등을 부목으로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직접적으로 상처부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문가가 함부로 만지면 부분파열의 정도가 완전파열로 악화될 수 있으며 자칫 주위의 혈관이나 신경 조직들까지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베거나 찢어진 경우에는 지혈이 가장 중요한 응급치료이다.

가벼운 부상일 때는 견딜 만큼 아프다가 4~5일 후 부기와 통증도 가라앉는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나중에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스키 도중 넘어져 무릎이 아프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피로는 스키의 가장 큰 적

스키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피로이다. 그래서 스키를 3시간쯤 타고 난 뒤 부상 빈도가 가장 높으며 피로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3시쯤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한낮 기온상승과 햇볕으로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스키의 회전력이 감소해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부상의 원인은 자기 수준보다 높은 상급자용 슬로프에 무리하게 올라가는 것이다.

또 평소에 충분한 체력을 유지하고,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취해주고 피로하면 즉시 스키를 중단해야 한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스키를 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키판과 신발을 고정하는 바인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체중에 비해 바인딩이 너무 강하게 조정돼 있으면 넘어질 때 스키판에서 신발이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진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바인딩을 약하게 조절해야만 부상을 줄일 수 있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 갑자기 혹은 점진적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일단 하던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통증은 우리 몸의 어느 곳인가 부상을 당했다는 신호이기에 가벼운 운동으로도 심한 부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기 고

학교폭력, 그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고찰

김택중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는 이젠 더 이상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살인과 자살, 정신병을 앓은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상태다.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는 '학교'와 '폭력'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학교와 연관된 폭력을 지칭한다. 학교는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닌 '교육기관'을 의미하고,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물리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폭력을 말한다.

폭력에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으로 가한 폭력뿐만 아니라 심한 욕설이나 모욕 등 심리적인 폭력도 포함된다. 심리적 폭력이 물리적 폭력에 비해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의 일부처럼 양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질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인 특성은 가정폭력이나 군대폭력과 유사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길어 폭력의 반복성 때문에 피해자는 항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때 피해자는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행동에 관계없이 가해자의 의도 혹은 기분에 따라 폭력이 행사되는 경향이 짙어 가정폭력은 가출할 때까지, 군대폭력은 제대할 때까지, 학교폭력은 졸업할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문제는 계속되는 폭력에 장기간 시달릴 경우 피해자가 폭력에 둔감해 지고 여러 정신병리학적인 이상증세 수반과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한마디로 인간을 총체적으로 피폐화시키는 것이며 인간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폭력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비록 피해자였어도, 학습효과를 초래한다. 중학교 시절에는 피해자였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중학생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유형은 대체로 ▲지능이 낮다 ▲학교 공부를 못한다 ▲결손가정에 많다 ▲폭력 영상물을 많이 본다 ▲나쁜 친구와 어울린다 ▲돈 씀씀이가 헤프다 ▲정서 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이다 ▲피해학생이 가해자로 발전된다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이 가해자를 설명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확실한 결론은 없다. '지능이 낮은 학생이 모두 가해자가 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가해자가 모두 지능이 낮았다'는 증거도 없다.

반대로 피해자의 유형은 ▲몸이 허약하다 ▲신체적으로 남다른 특징이 있다 ▲말을 더듬는 등 언어상에 특징이 있다 ▲건방진 모습을 보이는 등 남을 화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다 ▲전학자 중에 많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 많다 등의 학생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뿐이지 피해자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다루는 교사를 포함한 어떤 전문가도, 이론의 틀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당면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애정을 갖고 다루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어제 어디서나 모든 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회 전방위적인 관심과 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폭력 예방환경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학교폭력 예방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 예방환경이란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를 엄두가 나지 않도록 하는 집단압력이 존재하는 학교나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말한다. 이런 분위기의 형성과 정착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신고활동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면 가해자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위태로워지며 가해 의도와 행동이 줄어든다. 신고의 활성화는 과거의 폭력, 현재 진행중인 폭력, 미래의 폭력 모두를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즉 신고를 통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잠적해 있는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고, 현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해자를 즉각적으로 제지시킬 수 있으며, 예비 가해자에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체제구축으로 그 해답은 바로 피해학생이나 그 친구 또는 제3의 목격자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 부모, 경찰, 검찰 및 전문 민간기구에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 당사자에 의한 직접적인 신고율은 25% 내외에 불과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민 모두가 피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신고하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 · 고무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

피해학생들이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 결국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세력을 견제하고, 이에 맞서 싸울 선한 학생들의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폭력 예방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교사,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경찰, 검찰, 시민단체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교폭력이란 성장하는 학생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폭력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매우 심각한 폭력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다. '아이들이야 서로 싸우면서 크는 것 아닌가? 왜 이런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사회 문제화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러나 폭력이란 문명에 대한 야만적인 행위며, 이러한 폭력에 대한 태도는 어릴 때 형성될 뿐 아니라 폭력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폭력에 둔감한 태도가 형성되고 급기야는 제도적인 폭력으로 발전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 설

재정위기 지자체의 재정자치권 박탈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정부에서 긴급 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한시적으로 재정부분에 대한 집행권을 박탈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공기업도 적자폭이 늘어나고 해결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신속한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하는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서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집행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공기업의 운영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치권 박탈을 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자명하며 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히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 · 시행된다. 또한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건 및 절차 마련으로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도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 도래 채무에 대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신속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하게 된다. 해당 자치단체장은 채무상환 · 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포함한 긴급 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는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 파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기영합주의 행정을 자재하고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여 재정을 축내지 말고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관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해 왔다. 법제처 심의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에서 제기된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를 해소했다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권한,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의 근거가 마련되어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공기업법도 이번에 개정됐다.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도 강화된다.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해 타당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또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산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속한 해산과 청산절차 진행으로 지방재정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사업실명제도 도입한다.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담당자, 사업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공개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목적, 구성 및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명문화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 건전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농어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특히 심각하다. 일부 광역시도에 포함된 구청도 있다. 파산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재정자치권 박탈은 그래서 수긍이 간다. 적자재정에서 허덕이며 지자체가 손을 놓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지자체의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새 지방재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욱 심각하게 악화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또 지방공기업 설립 ·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의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도 확정했다. 또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 요건 · 절차를 규정, 청산에 걸리는 시간과 예산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시민들의 재산손실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성급히 사업을 단행하거나 전시성, 인기영합주의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나 1회성, 전시성 예산집행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일정부분 제한하고 지자체장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이 방만 경영을 추진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지방재정법 과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에 실효를 거두는 법이 되고 안전장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의 소사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 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요망.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YOUR-GYM

YOUR-GYM TOTAL FITNESS

2주년 감사이벤트 'PT등록 시 반값 SALE'

※ 실제 유어짐 관저점 스피닝룸 전경 ※

스피닝은 신나는 음악, 반짝이는 조명과 함께 리듬감을 즐기면서 앉지않고 서서 빠르게 자전거를 타는 수업으로 여러사람과 음악에 맞춰 하기 때문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스피닝의 효과

상체동작(에어로빅+댄스+근력운동)+하체동작(서서타는 근지구력운동)+50분동안의 유산소운동(런닝머신의3배,다이어트,복부비만에 효과적), 런닝머신과 스피닝을 같은 시간 했을 경우, 스피닝의 칼로리 소모는 3배정도!

스피닝 1시간 = 런닝머신 3시간

상체 안무는 팔의 이두 · 삼두 근력운동과 허리 근육강화에 도움.
하체 운동효과는 앉아서 타기보다는 서서 타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둔부 근력 강화와 허벅지 운동에 효과적!

"이런분들게 추천해드립니다!"

*업무에 지쳐 스트레스 받는 분!
*신나는 음악과 댄스를 좋아하시는분!
*운동은 해야 되는데 혼자 운동하기 싫은 분!
*삐져나오는 뱃살,늘어지는 팔뚝살,두꺼운 허벅지살을 빼고 싶은분!

유어짐 관저점 **친절상담 042)542-2118**